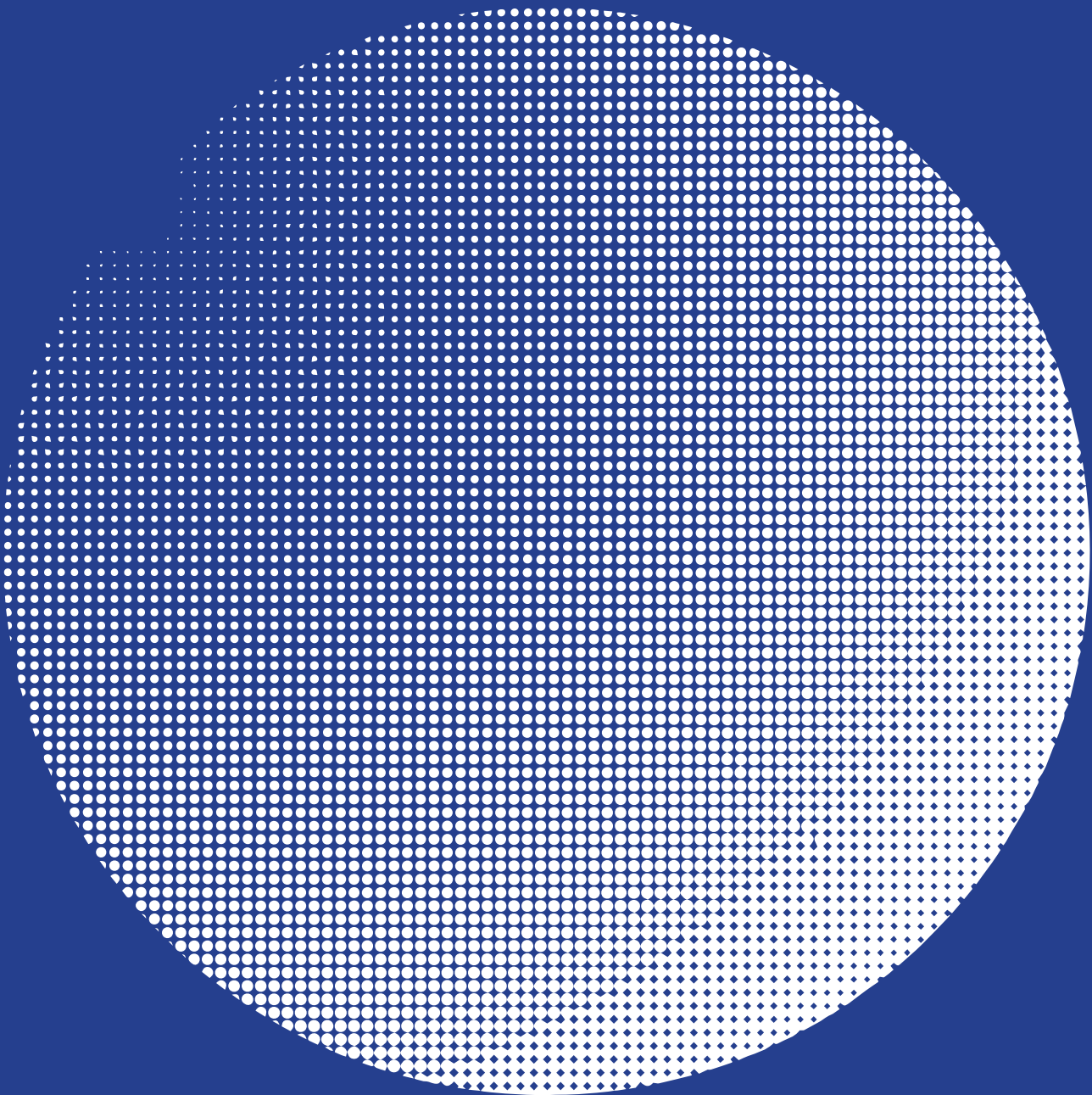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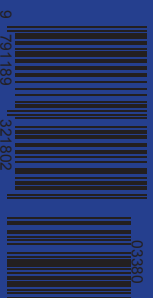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

2021 | Vol. 1 | 원형들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은 1년에 1회 발행하며, 매 호 세시풍속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매거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을 통해 세시풍속의 전통에 담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삶의 통찰을 제공하며,
생활양식으로서의 세시풍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깊이 있게 담아냅니다.



9 791189 321802
ISBN 979-11-89321-80-2

03380

어 쨌 면 이 미 알 다 시 피 , 세 시 풍 속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은 1년에 1회 발행하며, 매 호 세시풍속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매거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을 통해 세시풍속의 전통에 담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삶의 통찰을 제공하며, 생활양식으로서의 세시풍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깊이 있게 담아냅니다.

세시풍속 동그라미 그리기

Vol. 1 원형들

이번 호의 키워드는 '원형들'입니다.

원형이라는 단어는 본래의 모양, 밑그림의 바탕이 되는 본, 둥근 모양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Vol. 1 원형들은 세시풍속의 밑바탕이 되는 관념과 정서를 비롯하여 형태로 동그랗게 나타나는 세시풍속의 모습까지 포괄적으로 드러내며 원형과 세시풍속의 관계성을 제시합니다. 어떤 틀이나 형식에 얽매임 없이 그 자체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원처럼, 우리는 이 책에 과거 삶의 모습과 더불어 오늘날 세시풍속에 대한 현대인들의 말랑말랑한 호기심까지 순환하는 동그라미처럼 하나의 맥락으로 그려냈습니다. 음력과 절기의 바탕이 되는 시간관을 시작으로 세시풍속에 담긴 조상들의 바람, 풍류 가득한 세시놀이, 이어 달맞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일상에서 경험한 세시풍속의 크고 작은 파편들이 둥근 원을 이루며 삶에 밀착되는 경험을 말이죠.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

Vol. 1 원형들 편집팀

16



책을 내며

- 06 찾아옴의 희열 _김신식
- 08 키워드로 읽는 세시풍속 로드맵

1장 돌고돌다: 둥글 원(圓)

- 12 가깝고도 먼 시간, 음력 _이덕환
- 16 원형들 사전 | 음식
도전! 동그란 절기음식
- 24 식물의 조금 더 예민한 시간 관념
가드너 정미애 인터뷰

2장 바라다: 원할 원(願)

- 34 당신의 소원, 우리의 바람 _천진기
- 38 달을 품은 향아리
한국미의 아이돌 '달향아리'는 현대의 산물 _문소영
- 42 흙으로 빛은 달, 나무로 지은 달
도예가 권대섭, 작가 김규 인터뷰
- 62 그림에 부치는 편지, 김환기의 '달향아리' _서지형
- 68 원형들 사전 | 서화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민화의 이미지들

2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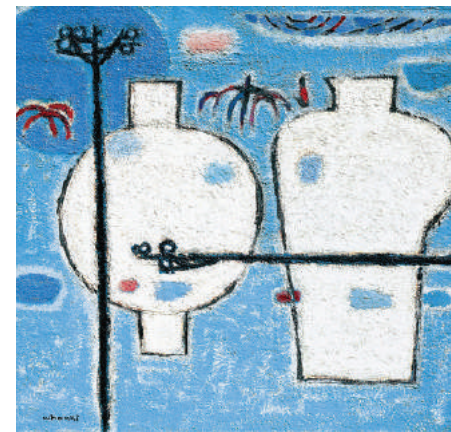
42



3장 끝어당기다: 당길 원(援)

- 80 특집기획 <달맞이의 탄생>
- 100 원형들 사전 | 놀이
다정하게 밀고 당기기
- 108 Trick or Treat! 정월대보름 다시보기 _김대현

62



마치며

- 110 뜯어 쓰는 입춘축

80



길라잡이 —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시풍속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요 프로그램 1위 기념으로 추는 아이돌 그룹의 강강술래 퍼포먼스에도, 복날 삼계탕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도, 새해에 소중히 사람들과 주고받는 덕담 속에도. 은연중에 우리 삶에 드러나는 세시풍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찾아옴의 희열

글. 김신식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한국 대 케냐 전. 비디오 판독 끝에 한국 팀의 첫 승리가 결정되자 선수들이 얼싸안고 강강술래를 추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기존 배구 팬들에게 익숙한 몸짓이었지만, 강강술래가 한국 여자배구팀을 상징하는 동작으로 더욱 널리 인식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워업 존(warm-up zone)에서 몸을 푸는 후보 선수들의 강강술래 짤이 화제였다. 팀이 득점할 때마다 선수들은 서로 손뼉을 친 채 돌거나, 어깨동무하며 빙글빙글 움직였다.

무형문화재 8호인 강강술래의 맥이 끊어지지 않았음은 오늘날 아이돌 문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에서 '아이돌 강강술래'라고 검색하면 강강술래를 하는 아이돌의 모습이 사진 이미지로 돌아다닌다. 아이돌은 예상치 못한 음악방송 1위 발표에 기뻐 나머지 신나게 무대를 돌며 자축한다. 아이돌은 그 기쁨을 팬들과 누리기 위해 강강술래를 1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아이돌이 강강술래를 추는 모습을 시청하고 되돌려보는 팬들은 장면을 캡처해 밈(meme)으로 소비한다.

혹자는 의아할 것이다. 저 아이돌, 아이돌을 지켜보는 팬들이 강강술래의 뜻을 알 나이인가? 곰씹어보면 유사한 질문은 내 일상에도 해당하였다. 비단 강강술래가 아니더라도 세시풍속에 해당하는 용어가 타인의 입에서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다. 하루는 지인과 커피를 마시는데 대화할 거리가 떨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지인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신식 씨 오늘 단오래요." 나는 지인이 몇 살인지 알고 있었다. 한데 의외로 지인의 옛된 얼굴이라는 이미지, 단오에서 떠올려진 예스러운 이미지가 자아내는 거리감이 마음속에 뚜렷이 생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인에게 "단오를 아네요?"라고 묻지 않았다. 나나 지인이나 단오가 무엇인지 세세히 알진 못할지라도 단오라는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을 흥미로이 음미한 듯했다. 지인의 언급을 통해 근래 유행하는 말로 좋은 바이브(vibe)를 느꼈다고 할까. 귀가하면서 생각했다.

유년 시절 수업 말고 그 이후 세시풍속에 관해 누군가에게 다시 배운 것도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마음에 익어버린 무언가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던 경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는 그런 경험에 대해.

그렇다. 세시풍속의 기본 취지와 그에 해당하는 절기별 내용이 점점 낮설게 느껴짐은 현실이다. 하지만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하고 본인도 신기해할 만큼 '세시풍속적인 것'이라 부를 만한 문화 코드는 우리 곁을 가까이 맴돌고 있다.

세시풍속적인 것은 각자의 의식에서 감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차원으로 당신과 내 삶에 꽤 스며들어 절로 표출되고 있을지도.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이 추구하는 의의가 있다면 세시풍속에 해당하는 의식(ritual)을 전형적인 수호와 전승의 렌즈로 고찰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세시풍속과 연계된 요즘 한국인의 사회적 무의식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에 가깝다. 무언가를 지켜내야만 한다는 시각만을 고수하다 보면 시쳇말로 대화의 흐름을 끊는 '맥 커터'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맥 커터가 되지 않기 위해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은 첫 주제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할 때 쓰이는 원(圓)을 곱았다. 편집진과 필진이 제시하는 세시풍속의 원은 '돌고 돌다' '바라다' '끌어당기다' 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네 일상을 달리 해석할 매개가 된다. 여기서 돌고 돌은 한국의 세시풍속이 건네어온 시간의 문화를, 바람과 끌어당김은 한국인이 지향해온 염원의 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로 이어진다.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나는 '찾아옴'에 대해 생각했다. 세시풍속은 인간이 그때그때 해당하는 풍습을 직접 찾아서 실천함을 넘어, 세시풍속을 통해 풍습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찾아오길 바라는 개인의 마음 및 감정, 공동체의 정서를 헤아리는 재료가 된다.

코로나의 기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길게 지속되는 요즘,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만들어내는 바글바글한 기운이 찾아오길 바랄 것이다. 학생들은 대면으로 진행되었다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하는 번덕스러운 수업 방침에 지쳐가면서도 자신이 바라는 성장 환경이, 거기서 만끽할 만족감이 찾아오길 바랄 것이다. 불가피하게 시민의 코에 면봉을 깊이 넣어가며 때론 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채 마음 다치는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의 기운이 찾아오길 바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 조심스러운, 그러나 그만큼 무언가가 찾아오길 바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중이다. 이런 맥락 아래 세시풍속이 그려온 원은 찾아옴을 둘러싼 인간의 다양한 실천이 우리네 일상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징표다.

또한, 불안한 현재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찾아와주길 바라는 기분과 감정을 안내하는 문화적 단서다. 한편으로 우리 각자가 현실 속에서 무엇에 시달려왔는지 토로한 채 찾아오길 바라는 미래를 논할 대화의 대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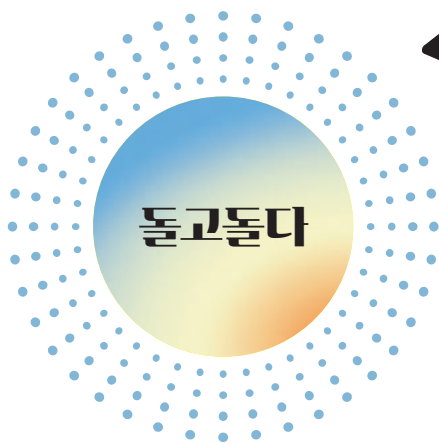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찾아옴의 희열을 원하고 있다. 세시풍속에 담긴 원을 통해 본 프로젝트는 찾아옴의 희열을 만끽하기 위해 강강술래와 같은 역동적인 몸짓과 사유를 시도해보자 말한다.

자, 이제 원을 그려보자!

김신식
한국 사회의 감정과 마음을 사회학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연구자이자 작가. 『다소 곤란한 감정』 등을 펴냈다.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 로드맵

다양한 원형들이 찾아오기 전, 우리가 찾아가는 희열을 먼저 느껴볼까요?



연초부터 구정과 추석이 언제인지 카운팅 하고 있나요?
#음력 #노는날 #날짜헛갈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공휴일을 찾는 우리! 그러다 문득 가장 길게 연결된 빨간 숫자 행렬을 만납니다. 매년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 날짜가 번번이 바뀌는 민족 大명절, 이것은 음력을 따르고 있었으니... 아, 대체 음력은 왜 무엇인지, 우리만 지키는 날짜 개념인지 궁금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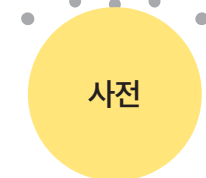
P.12



올봄에는 흐드러진 벚꽃을 보러 가겠다 다짐하고 있다면? #절기 #개화시기 #가드닝유행

벚꽃이 갑자기 후드득 만개하면 봄이구나 싶다가도, 갑자기 스르륵 지면 봄도 다 갔구나 싶잖아요. 매해 벚꽃 시즌이 달라지는 건 식물의 시간이 달력을 보며 때를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래요. 시간을 감각하고 절기의 변화에 반응하는 식물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다면

P.24



음식, 그림, 놀이를 주제로 한 원형들 사전!

P.16
P.68
P.100



전통과 형식은 잘 모르겠지만, 작은 관심은 두고 있나요?
#MZ세대 #경험주의 #메타버스 #밈

뭐가 되었든 해보지 않고 좋은지 아닌지 알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동시대를 사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당시의 전통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재현해보기란 어려운 일! MZ세대의 앞쪽에 속하는 아티스트 3인이 정월대보름에서 여러 가지 질문 키워드를 파생시켜 이리 보고 저리 보는 고민의 여정을 함께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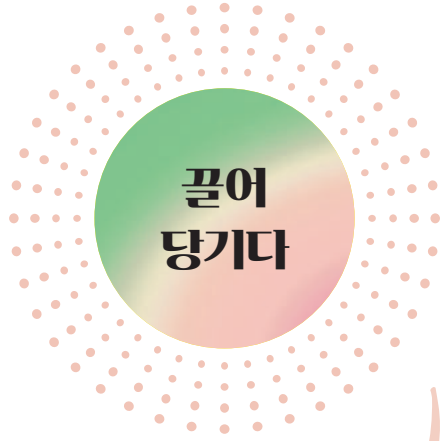
P. 80



인생도 사랑도 타이밍이라는 말, 격하게 동의하시나요?
#기도 #소원 #타이밍성공

설 명절을 대표하는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밸런타인데이에 주고받는 초콜릿 선물처럼 최적의 타이밍에 건네면 혹 다가오는 어떤 징표가 있죠. 타이밍이 적중할 때 몇 배로 강력해지는 말과 행동의 힘을 느껴보시려면

P. 34



반복되는 일상, 살짝 일탈해도 괜찮은 날 어디 없나요?
#헬러원 #정월대보름 #일탈 #해방

있습니다! 평소라면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복장도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날, 바로 헬러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재밌게 놀 수 있는 날이 없을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P. 106



BTS RM도 구매한 그 ‘달항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BTS #랩몬스터 #달항아리

K-POP의 중심에 BTS가 있다면, 달항아리는 바로 미술계의 아이돌! 커다란 조선백자가 ‘달항아리’라는 로맨틱한 이름으로 거듭나며 서서히 그러나 뜨겁게 현대 미술시장을 매료시켰어요. 요즘 모두가 가지를 원하고 또 원하는 달항아리의 둥근 면면을 만나는

P. 38



동글 원

누구나 각자의 시간을 통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의 흐름은 우주 만물의 공통법칙이며, 예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제각각으로 보입니다. 한 달 주기와 일 년 주기는 세계적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생활 속 주기의 패턴은 나라마다 그리고 민족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읽으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농사에 달력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달을 보고 만든 달력인 음력, 음력의 약점을 보완하는 24절기, 이어 절기 음식까지 함께 다루며 시간의 흐름을 읽는 방식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돌고돌다: 동글 원(圓)을 통해, 세시풍속의 근간이 되는 시간관념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PART.1

돌고
돌다

가깝고도 먼 시간, 음력

글. 이덕환

길라잡이 — 한때 시간을 헤아리는 개념은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를 바탕으로 만든 음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양력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든 걸까요?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음력을 써왔다. 오늘날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그레고리력을 쓰기 시작한 것은 1896년 1월 1일부터로, 고종 황제의 율미개혁에 따른 과감한 선택이었다. 미터법을 도입하고, 중두법을 시행하고, 전기를 들여온 것도 역시 고종 황제의 결단 덕분이었다.

과학의 발전에 따른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공동체의 전통을 쉽게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달력의 경우가 그렇다. 지금도 우리는 설날,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은 전통적인 음력을 따른다. 생일이나 기일(忌日)을 음력으로 행기는 가정도 적지 않다. 특히 이슬람과 유대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전통 달력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중국도 음력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있다. 다만 전통이라는 이유로 음력에 대한 잘못된 오해까지 용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음력이 계절을 더 잘 알려주고, 농사에 편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다. 실제로 농사에 꼭 필요한

24절기를 알아내는 데는 음력보다 양력이 훨씬 더 편리하다. 중국과 우리의 절기가 다르다는 주장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고려한 음력은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의 변화와 생이 밀접하게 맞닿는 바닷가 어민들에게 더 유용한 것이다.

회회력(回回曆)이라고 알려진 이슬람의 회회력 또는 마호메트력이 가장 전형적인 음력이다. 29일(짝수달)과 30일(홀수달)로 구성된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30년 동안 11번의 윤일(12월)을 더해준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29.53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시도였다. 회회력은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 달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인 라마단은 회회력의 '9월'을 뜻한다. 회회력은 원(元)과 명(明) 시대에 아라비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고, 세종 때 만들었던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도 회회력을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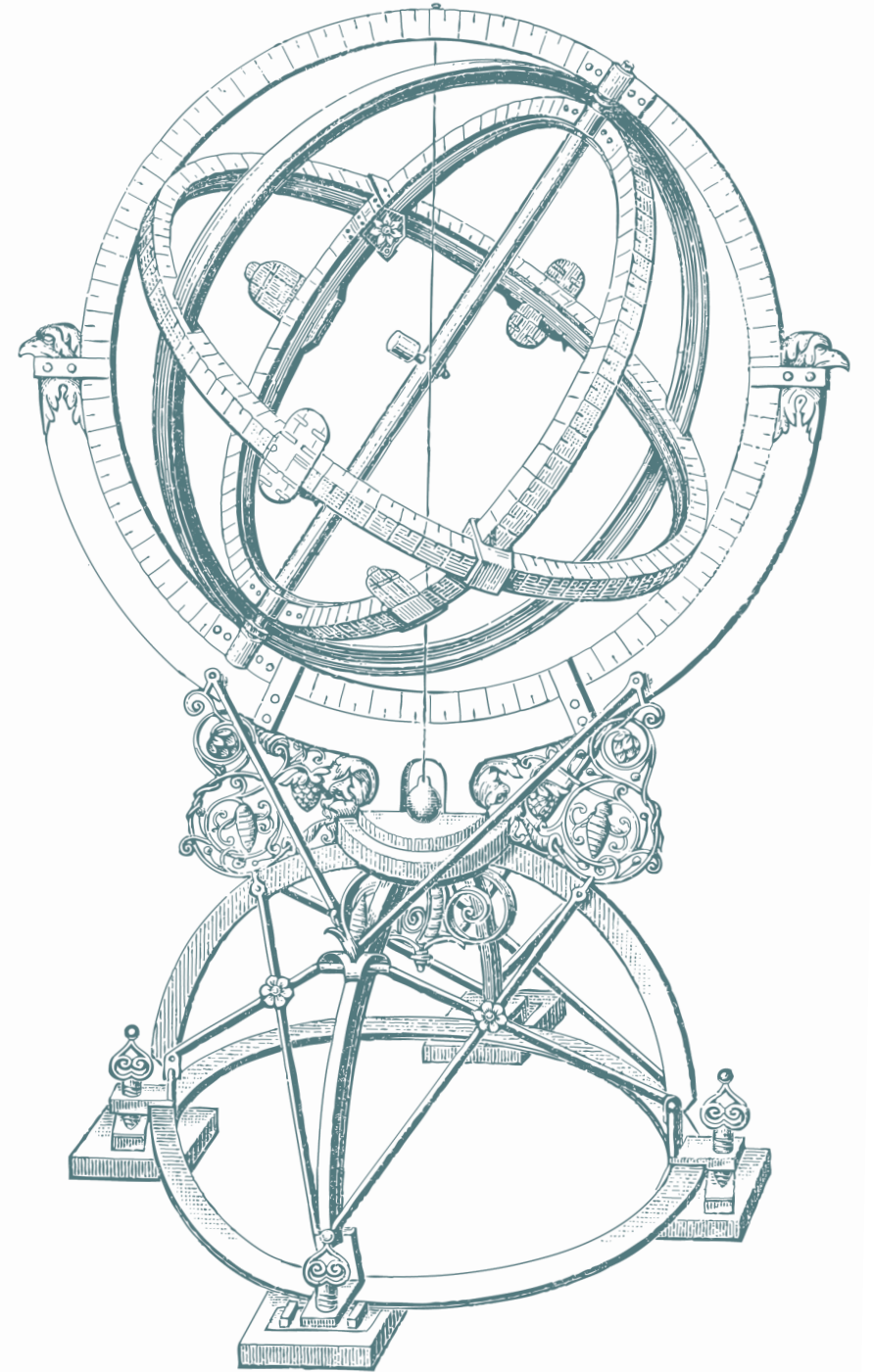
회회력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354일에 불과한 회회력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낼 수 없다. 계절의 변화는 달의 위상 변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계절을 결정하는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일이다. 단순한 회회력의 1년보다 무려 11.24일이나 더 길다.

또한 회회력에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다. 3년마다 태양의 공전 주기와 무려 34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평균 3년마다 윤달을 끼워 넣어야 한다. 윤달을 언제 어디에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주로 19년에 7번의 윤달을 끼워 넣는 '태음태양력'(lunisolar calendar)이 많았다. 그러나 8년에 3번의 윤달을 넣거나, 27년 동안 10번의 윤달을 넣는 방법도 있었다.

渾天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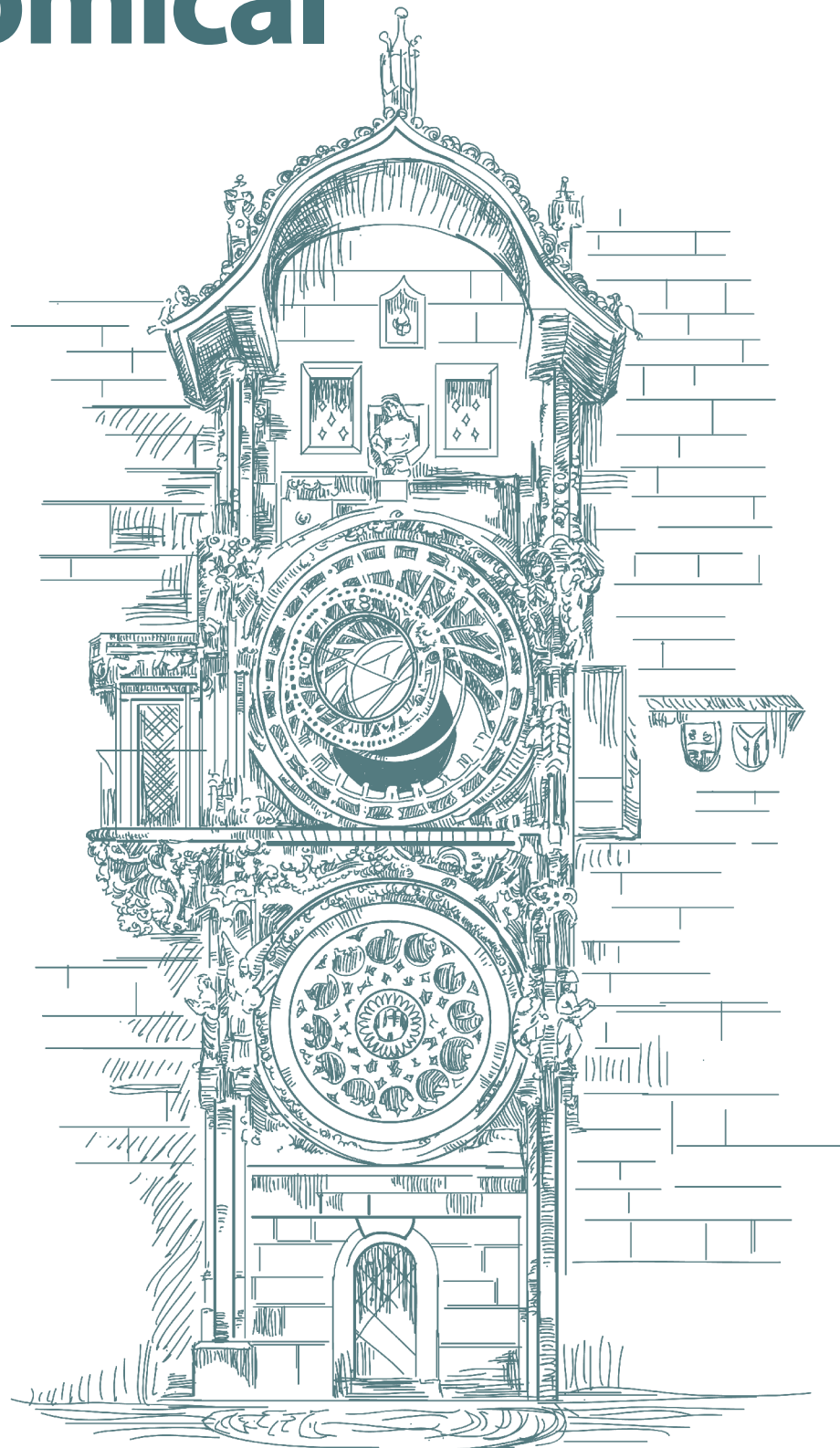
혼천의(渾天儀)

기후를 예측하기 위해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 '혼천의'라는 명칭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사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선기옥형' 또는 '기형(機衡)'이라 불렸다. '혼천의'의 혼(渾)은 둥근 공을 말하는 것으로, 동심다중구(同心多重球)를 의미한다. 혼천의는 아침-저녁 및 밤중의 남중성(南中星), 천체의 적도좌표·황도경도 및 지평좌표를 관측하고 일월성신의 운행을 추적하는 데 쓰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Prague astronomical clock

프라하 천문시계
1410년에 설치되었으며, 하늘의 해와 달의 위치 등 다양한 천문학적 정보를 표시한다.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농경 문화권에서는 태음태양력을 제작하는 일이 국가의 가장 막중한 업무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바빌론·유대·그리스·인도 등의 종교·문화권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태음태양력을 개발했다. 달의 위상 변화와 태양에 의한 계절의 변화를 일치시키려면 고도의 천문관측 기술이 필요했다. 중국은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천문관측으로 알아낸 절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한(漢)의 태초력(太初曆)에서 청(淸)의 시헌력(時憲曆)에 이르기까지 십여 차례의 개혁이 필요했다. 세월에 따라 누적된 오류를 바로잡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했던 음력은 중국에서 개발된 '중국력'이었다. 중국이 제작한 태음태양력을 편찬한 '책력(冊曆)'은 공짜가 아니었다. 엄청난 규모의 조공을 해야만 했다. 전통적으로 달력은 기술 패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던 셈이다. 음력의 전통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아픈 경험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기술은 언제나 국력의 기반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은 1582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그레고리력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1년 365일을 30일과 31일로 구성된 12달로 구분하고, 2월은 28일로 하고, 4년마다 2월에 윤일을 두는 것이 그레고리력을 구성하는 원칙의 전부다. 그레고리력의 등장으로 달력을 위해서 강대국에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계절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반영한 정확한 달력을 개발한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레고리력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계절의 예측 능력이다. 계절은 지구 자전축이 공전 궤도에서 36.5도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다. 북반구에서는 기울어진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고 있는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반대로 기울어진 자전축이 태양에서 먼 방향을 향하고 있을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레고리력은 그런 계절의 변화를 근거로 만들어진 달력이다. 그래서 낮이 가장 긴 하지는 거의 언제나 6월 21일이고, 밤이 가장 긴 동지는 거의 언제나 12월 22일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은 거의 언제나 3월 21일과 9월 23일이다. 동양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24절기가 모두 그레고리력에 규칙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달력을 작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천문관측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레고리력은 기원전 로마 제국을 건국한 로물루스가 기원전 753년에 만든 로마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춘분을 포함하는 '마르티우스'(오늘날의 3월)에서 시작하는 10개월 304일로 구성된 전통적인 로마력은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10번째 달이었던 '디켄브리스'(오늘날의 12월) 다음에 두 얼굴을 가지고 성문을 지키는 '야누스'에서 유래된 '야누아리우스'(오늘날의 1월)와 '정화(淨化)'를 뜻하는 '페브루아리우스'(오늘날의 2월)를 넣어 1년을 12개월로 만들었고, 야누아리우스를 새해의 시작으로 만들었다. 그런 전통은 기원전 45년의 율리우스력에서도 유지되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양력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처럼 음력의 전통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국가도 있다. 세계화된 시대에 양력이 편리한 선택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전통 달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 유대교의 로쉬 하샤나(Rosh Hashana), 이슬람의 라스 앓사나(Ras as-Sanah)를 비롯한 종교적 축일은 모두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 달력을 따른다. 전통과 종교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불편과 불합리는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에서 34년 동안 화학과 과학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2019년 9월부터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사)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과학기술·교육·에너지·환경·보건위생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칼럼과 논문 2800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과학문화상(2004), 님고 싹고 되고 싶은 과학자상(2006), 과학기술훈장 웅비장(2008), 옥조근정훈장(2019), 유미과학문화상(2020)을 받았다. <갈기도 하고, 아니 갈기도 하고>와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등의 과학 교양서를 번역했고 주요 저서로 <이덕환의 과학세상> 등이 있다.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 명절음식에는 자연의 변화와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영양가가 풍부한 제철 식자재로 만든 음식은 조상들이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되었죠.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먹는 떡국, 삼복더위를 이겨내는 보양식 삼계탕은 오늘날 우리 일상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절기음식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몇 가지 음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절기 음식은 서구화된 음식문화와 식자재의 모호해진 제철 구분으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이름은 다소 낯설지만 알고 보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동그란 절기음식들의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원형들 사전 | 음식

도전! 동그란 절기음식

글·사진 편집팀

圖 : 풍문음 | 인공나무



꿀을 곁들인

향긋한 화전



화전은 꽃으로 음식을 해 먹었던 선인들의 낭만과 지혜를 볼 수 있는 음식이다. 대지의 계절인 봄이 만개하는 삼짇날 꽃을 따서 화전을 만들었으며 국화, 진달래 등 들판에 피어난 봄꽃이 주재료다. 먹을 수 있는 꽃이라면 모두 화전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꽃이 없다면 미나리 잎이나 대추를 잘게 썰어 꽃 모양으로 만들어 연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식자재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니쉬용 식용 꽃을 활용해 작고 귀여운 모양으로 만들어보았다. 알록달록하고 예쁜 꽃 한 팩만 있으면 접시 위에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소박하지만 우아하며 단순하지만 섬세한 절기음식인 화전 만들기! 지금부터 함께 도전해보자.

화전놀이는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 중턱에 올라 서로 편을 나누어 화전가와 화전답가를 주고받는 놀이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삼짇날 중전을 모시고 비원에 나가 옥류천가에서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꽃을 엮어 화전을 부쳐 먹으면서 화전놀이를 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화전」 본문 중

화전만들기

난이도 : ★★☆☆☆ | 조리시간 : 20분 | 재료 : 식용 꽃 1팩, 찹쌀가루 1컵, 뜨거운 물 1컵, 소금 반스푼



1 먼저 식용 꽃을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말려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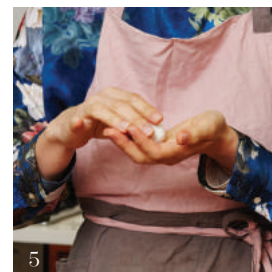
2 불에 찹쌀가루 150g, 소금 반 스푼을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주걱으로 섞는다.



3 반죽을 손으로 치대면서 말랑말랑하게 반죽을 한다.



4 5분간 비닐에 넣어 숙성시킨다.



5 숙성시킨 반죽을 작게 떼어내 손바닥으로 납작하게 만든다.



6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익힌다. 한 면이 익었을 때 뒤집어서 꽃을 엮고 눌러서 살짝 익힌 후, 안 익은 한쪽 면을 익혀서 꺼낸다.



완성된 화전에 꿀을 곁들인다.

수레바퀴 문양을 찍어내 만드는

수리취떡



풀잎 색의 곱고 향기로운 수리취 가루로 만든 수리취떡은 대표적인 단오절식 중 하나다. 단옷날을 다른 말로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는 우리말의 수레를 뜻한다. 따라서 수리취떡은 수레 모양을 상징하여 수레바퀴 문양의 떡살로 찍어내는 것으로, 멥쌀가루에 액운을 물리치는 의미로 수리취 가루를 넣어 반죽한다. 수리취떡은 본래 수리취 가루를 사용하지만,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썩 가루로도 비슷한 맛과 향을 낼 수 있다.

썩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식물로 우리 민족에게 신성시되었으며, 재액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겼다. 또한 약효가 있어 위장병, 소염작용, 지혈작용, 설사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리취떡」 본문 중

수리취떡 만들기

난이도 : ★★★★★ | 조리시간 : 40분 |

재료 : 멥쌀가루 500g, 수리취 가루 또는 썩가루, 떡 도장, 설탕 1큰스푼, 소금 1큰스푼, 참기름, 뜨거운 물 1컵



1 체에 멥쌀가루를 발쳐 곱게 내린다.



2 멥쌀가루와 수리취 가루 또는 썩 가루를 50g 넣고, 색이 잘 스미도록 골고루 섞는다.



3 섞은 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한 스푼씩 넣어 간을 맞추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뭉쳐서 익반죽한다.



4 만든 반죽을 여러 번 치대어 쫄깃한 식감을 살리고, 아기주먹만한 크기로 덜어내 동글하고 납작하게 빚는다.



5 빚은 반죽에 떡 도장을 꼭 눌러 모양을 낸다.



6 찜기에 올리고 면포를 덮어 20분간 찜준다.



7 찜낸 떡 위에 요리 붓으로 참기름을 발라준다.



TIP. 견과류를 뿌려 꿀을 찍어먹어도 별미!

만두피에 싸먹는

간편 팔절판



한식 쌈 구절판은 아홉 칸 목기에 아홉 가지 재료를 담은 한국 고유 음식으로, 궁실이나 반가에서 유두절의 시절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구절판은 돌레의 여덟 칸에 여덟 가지 재료를 담고, 가운데 둥근 칸에 밀전병을 담아 음식을 골고루 집어 밀전병에 싸서 먹는 음식이다. 이번에 소개할 레시피는 구절판에서 고기를 생략한 레시피다. 또한 밀전병 대신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두피를 활용하여 간소하게 만들어 보았다.

구절판의 식기는 주로 옷칠을 하고 자개를 박아 다양한 문양으로 아름답게 만든 목공예품으로, 최근에는 도자기나 유리·플라스틱·은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구절판은 주안상이나 다과상에도 이용되고 있다. 주안상에는 생물·호두·은행·대추·잣·땅콩·곶감 등의 마른안주를 담고, 다과상에는 각종 강정·정과·다식·숙실과 등을 색을 맞추어 담는다. 특히 이것을 건구절판이라고 한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구절판(九節板) 본문 중

팔절판 만들기

난이도 : ★★★★★ | 조리시간 : 50분 |

재료 : 계란 3개, 당근 1/2개, 파프리카 1개, 적색양배추, 팽이버섯, 숙갓, 깻잎, 소금, 밀가루 1컵, 식용유, 연겨자



1 파프리카, 당근, 양배추, 팽이버섯 등 재료를 하나씩 손질한다.



2 야채는 4cm 길이로 잘라 얇게 썬다.



3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야채를 볶는다.



4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얇게 부치고 4cm 길이로 채를 썬다.



5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만두피를 굽는다.



6 만두피를 가운데 놓고 준비한 속 재료를 돌레에 담는다.

TIP.
팔절판에 곁들일 겨자소스 간편하게 만들기

시판 연겨자와 물을 1:1 비율로 섞고, 설탕 한 스푼과 식초 한 방울을 넣어 섞으면 완성!

정미애 가드너 인터뷰

식물의 조금 더 예민한 시간 관념

글 편집팀
사진 김남희, 편집팀

우리는 날씨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소나기 예고에 우산을 챙기고, 한파가 온다는 소식에 옷장에서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기도 한다. 그런데 야외에서 식물을 돌보는 가드너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기 전에 피부에 와닿는 바깥 공기로 누구보다도 먼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는 한다. 식물과 함께하며 절기의 순환에 대비하는 가드너의 일상 안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12월의 오산 물향기수목원

귀룽나무



먼저, 간략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드너(Gardener) 정미애입니다. 스물 두 살부터 가드너로 일하기 시작해서 어느덧 18년 차가 되었고, 현재는 경기도 오산 물향기수목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가드너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정원을 아끼자기하게 가꾸는 일을 상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겸하는 일이에요. 식물을 알맞은 환경에 심는 일부터, 심은 식물이 잘 자라고 번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원을 만들 때 초기 단계에 토양 만들기부터 퇴비의 비율 맞추기, 바닥에 깔 돌 고르기, 네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감상할 수 있는 식물을 선별하는 일도 모두 가드너가 책임지고 있어요.

늘 자연과 마주하는 장소, 경기도 오산 물향기수목원은 어떤 곳인가요?

10만 평 규모의 도심형 수목원이에요. 수목원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공기가 바로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이곳을 오산의 아마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처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동물의 약육강식처럼 식물의 세계에서 우종만 살아남을 수 있고, 나무도 크는 나무만 크게 되기 때문에 도심형 수목원은 사람의 손길을 꼭 필요로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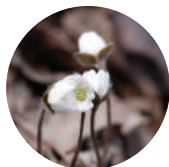
과거 임업 시험장이었던 이곳에는 지금도 거목이 많아요. 게다가 오산은 본래 물이 많은 지역이고, 지금의 세교 신도시 부지에는 습지가 많았는데, 개발 전에 버드나무 같은 습지 식물을 수목원으로 옮겨 오기도 했어요. 수목원 안에는 물을 주제로 한 테마원이 많고, 특히 메타세쿼이아 길과 연못이 어우러진 습지생태원은 참 아름답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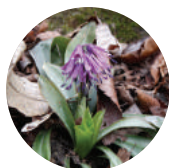
깽깽이풀



미치광이풀



노루귀



처녀치마

도립식물원 소속인 물향기수목원은 대중이 보고 즐기는 정원 만들기 외에도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증식,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요. 귀한 자생 식물들을 잘 키워 수목원 곳곳에 식재하고, 잘 자라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수목원에 오신다면 저의 노력과 자연의 힘을 모아 키워낸 깽깽이풀과 미치광이풀, 노루귀, 처녀치마, 솔나리 같은 자생식물을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해요.

식물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만큼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방식도 조금은 특별할 것 같아요. 가드너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의 냄새, 온도, 무게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공기의 느낌으로 시간을 인지하는 것 같아요. 24절기 중 한 해의 첫 절기인 입춘은 2월입니다. 말은 입춘인데, 공기가 뻗속까지 차요. 아마 옛날에는 더 추웠겠죠. 이렇게 추운데 봄이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무렵에 씨앗을 파종하면 3월에 새순이 돋거든요. 그러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3월의 경칩이 오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볼에 공기가 닿는 순간 봄을 느끼죠. 때로 공기의 느낌과 더불어 식물의 성장을 보며 계절의 무르익음과 시간의 변화를 인지하기도 해요.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24절기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식물들을 돌볼 때 '아, 그때구나.'하고 와닿는 절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계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 아닐까요. 절기는 우리가 인지하는 계절의 감각보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앞서있어요. 이렇게 앞섰던 이유는 농사하기 전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였겠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야 하니까, 최소 한 달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온 줄 알고 일찍이 꽃을 피운 개나리가 다음 날 갑작스레 차가워진 기온을 견디지 못하고 얼어버렸다.

사실 2월은 한창 추울 때잖아요. 하지만 땅이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도 수목원은 2월 입춘부터 파종을 시작해요. 저는 수목원에 있는 하우스를 수목원의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 공간이 가득 차오를 때가 2월부터인데, 뽁뽁하게 파종된 상자를 보고 있으면 제 배가 다 부른 기분이 들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5월 입하를 시작해요. 이제는 5월 입하가 지나면서 밖이 더워지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우스 안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요. 그 무렵에는 예를 들면 파종한 식물을 포트에 옮겨 담는 일이나 지난해 놓쳐버린 가을걷이도 부지런히 해야 하죠. 아! 그리고 봄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를 없애는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업무예요.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다는 건 농번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도 같아서, 기분 탓인지 몸 여기저기가 다 쑤시는 듯해요. (웃음)
대략 8월 초에 접어들면 입추인데요, 그 무렵엔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지만 수목원은 입추를 기점으로 새벽 공기가 확연히 달라져요. 하늘이 높아지면 가을의 시작을 체감할 수 있죠. 입추가 지나면 시간이 훌쩍 지나 금세 11월이 돼요. 수목원에 출근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나갔는데 손끝에 스며드는 온기가 기분 좋게 느껴질 때, '아! 입추의 시작이구나'라고 알게 되죠.



절기의 개념은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식물을 돌보는 가드너에게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과거 절기를 구분하여 시간을 헤아리는 개념은 현대인들의 시간개념과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24절기 안에는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사실 식물은 시간이 아닌 환경에 반응하는데요. 각 식물은 자신의 DNA가 기억하고 있던 환경이 만들어지면 살아남기 위해 진화합니다. 식물의 DNA처럼 사람도 오랜 시간 환경에 적응하며 경험 속에서 느낀 시간의 흐름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절기가 아닐까 해요. 가까워지는 절기를 확인해 해당 절기의 뜻을 상기하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수목원은 입춘이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 되듯, 여러분에게도 분명 어떤 절기가 계획을 위한 알람시계처럼 작동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식물과 가드닝 혹은 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예요. 가드닝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을 좋아해요.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말을 되뇌며 가드너라는 저의 직업에 자긍심을 느껴요. 가드너가 식물을 기르는 것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모두 풀을 만지고 키우는 일이라 근본은 같거든요. 세월이 변하고 기후에 이상이 온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은 24절기를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듯 맞는 듯 24절기 딱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그 공기는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최근 기후와 환경문제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식물을 돌보면서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후의 변화는 개화 시기 등 식물의 생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지구 온난화가 식물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은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건데요. 물론 예전에도 개나리가 가을을 봄으로 착각하고 꽃을 피우는 일들이 이따금 일어나고는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눈에 띄게 늘었죠. 꽃을 피운다는 건 뿌리를 통해 줄기로 물을 끌어 올린다는 건데, 번덕스러운 겨울철 이상기온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뜻한 날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 올렸다가 다음 날 갑작스레 추워지면, 물을 머금었던 부분이 얼어서 꽃이 죽어요.

꿀벌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꿀벌은 온도가 0도 이상이 되어야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정을 도와줄 벌이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겨울에 꽃이 너무 일찍 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수정을 도와줄 수는 없어서, 이런 상태가 이어지다 보면 생태계는 점점 망가져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제가 가드너로 처음 일을 시작했던 18년 전 5월에는 2021년의 5월만큼 덥지는 않았어요. 요즘 주변에 농장 하시는 분들 말씀이, 날이 점점 더워져서 과수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한숨을 쉬세요. 기후가 안 맞아 키울 수 없던 파파야 같은 열대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라니 한반도의 기온이 상승하기는 했나 봐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입춘(2월 4일)
유채꽃



입춘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노란색이 아닐까요? 언 땅을 뚫고 올라와 봄소식을 전하는 샛노란 유채꽃이 생각나네요.

우수(2월 19일)
물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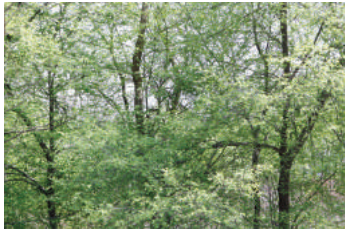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 즈음엔, 초록 잎끝에서 매달렸다가 또르르 떨어지는 물방울의 이미지가 생각나요.

경칩(3월 5일)
수선화



겨우내 움츠렸던 봄 식물들이 싹을 틔우는 시기죠. 3월에 만발하는 수선화를 추천해봅니다.

입하(5월 5일)
귀룽나무



5월의 시작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귀룽나무요. 귀룽나무의 꽃이 눈처럼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 봄과 여름 사이 어느 시간의 중간에서 있는 듯한 신비로움을 느껴요.

소만(5월 21일)
벼



5월 끝자락은 모내기 철이에요. 소만이 지나고 나면 진짜 여름의 시작인 거죠. 이윽고 푸르른 물결을 만들 초록빛 어린 벼가 소만과 가장 어울리는 식물이 아닐까요.

망종(6월 6일), 하지(6월 21일)
매실나무



6월은 매실이 열리는 시기예요. 매실은 꽃도 예쁘지만, 그 토실한 열매가 맛있어서 6월에는 매실청을 종종 담그곤 해요.

백로(9월 8일), 추분(9월 23일)
밤



가을의 정점 9월이라면, 역시 속이 짙 찬 알밤 아니겠어요?

한로(10월 8일)
국화



말할 것도 없이, 화려하고 탐스러운 국화의 절기죠.

상강(10월 23일)
서리



이맘때쯤엔 서리가 내려요. 반짝이는 서리가 어스름한 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새벽 풍경은 보석이 내린 듯 아름답죠.

춘분(3월 21일)
매화



3월의 마지막 무렵인 춘분은 남쪽에서 매화가 만발하는 시기입니다. 매화는 꽃도 예쁘지만, 초록색의 싱그러운 가지가 참 아름다워요.

소서(7월 7일)
보리



보리는 10월에 씨를 뿌려 싹을 틔우고, 이듬해 7월 소서 즈음에 수확해요. 싹이 난 채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이른 봄에도 초록을 보여주죠.

입동(11월 7일)
배추



입동과 함께 김장이 시작되죠. 잘 여문 배추와 알 굵은 무가 생각나네요.

청명(4월 5일)
진달래



동네 뒷산에 진달래가 피어날 무렵이죠. 흐드러져 만발하기보다는 무심하고 등성등성하게 피어나는데, 그 여백이 참 예뻐요.

대서(7월 23일), 입추(8월 7일)
수박



절기상으로 가장 더운 때와 가을로 접어드는 때가 맞붙어 있어요.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라 수박이 생각나네요! 튼실한 수박 한 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줄기에 단 하나의 꽃만 남겨야 해요.

소설(11월 22일), 대설(12월 7일), 동지(12월 22일) 전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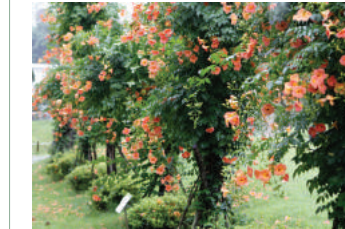
겨울이 정점에 달하는 세 절기예요. 꽃들이 화려한 색을 거두고 겨우내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사시사철 푸른 전나무는 변함없이 푸르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곡우(4월 20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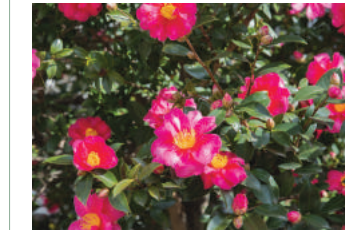
이맘때쯤에는 곧 비가 올 듯한 묵직한 공기를 느낄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물가에서 빗방울이 수면에 닿는 순간을 가만히 바라보고 싶어요.

처서(8월 23일)
능소화



능소화가 만발할 무렵이죠. 어릴 적 가족여행으로 마이산에 갔었는데, 절벽에 피어난 능소화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 꽃이 능소화라는 건 나중에야 알았지만.

소한(1월 5일), 대한(1월 20일)
동백



저는 추위가 최고조에 달할 때, 잠시 육지를 벗어나 따뜻한 제주도에 가 있는 걸 좋아해요. 이맘때 제주도에 가서 듬뿍 피어난 붉은 동백을 보며 새로운 해를 보낼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온답니다.



원할 원

바라다: 원할 원(願) 에서는 세시풍속에 깃든
인간의 바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일컬어 바람이라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신에게 소원을
빌 때가 있죠? 시험이나 면접에 합격하게 해달라거나,
사랑을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말이죠.

과거 조상들도 세시풍속을 행할 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시대가 다르다 한들, 그 간절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풍요와 건강에 대한
소망은 인류의 영원한 바람이 아닐는지요.

PART.2

바라다

당신의 소원, 우리의 바람

길라잡이 — 세시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는 의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연인들의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도 세시풍속의 연장 선상으로 거론될 수 있을까요?

글: 천진기

경칩에 나눠먹는 은행나무 열매



복을 바라는 덕담

세시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는 의례행위를 말한다. 세시풍속의 시간관념은 1년을 주기로 순환 반복하는데, 이때 세시 명절은 계속된 농사일에서 일종의 생일 구실을 한다. 명절은 제철 식자재로 만든 명절 음식과 설빔·단오빔·추석빔 등 명절 새 옷, 더불어 즐기는 민속놀이가 어우러지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다. 명절날에 선조들은 여러 민속놀이를 통해 휴식을 제공하여 다음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조상을 비롯한 여러 신령을 받들며 소원을 빌었다.

설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설날 새해를 맞이하면 조상에 대한 새해 인사로 차례를 지내고, 살아 계시는 집안 어른들에 대한 새해 인사로 세배를 건넨다. 세배 후에는 으레 덕담을 주고받는다. 덕담을 건넬 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표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실 테니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새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는 "새해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신다니 축하드립니다."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 덕담에는 듣는이의 행운을 비는 진심이 담겨 있으며, 덕담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우리 삶에는 말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힘이 작용한다.

기념일에 전하는 사랑

한편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현대인들의 풍습처럼 전통 세시풍속에도 연인들을 위한 날이 있다. 정월 대보름 탐돌이, 경칩 날 은행 나눠 먹기, 견우직녀의 칠월칠석 등이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세시 명절이다. 신라 때부터 있었던 정월 대보름의 '탐돌이'는 남녀가 탐을 돌다가 눈이 맞아 마음이 통하면 사랑을 나누는 신나는 축제의 날이었다. 조선 세조 때는 서울 원각사 탐돌이에 연문과 추문이 심하다며 금지령이 떨어지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벌레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또한 연인의 날이다. 경칩 날 정을 묻고 싶은 부부나 멀어진 정을 결속시키고 싶은 부부,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처녀와 총각들은 은밀히 숨어서 은행을 나눠 먹었다. 『사시찬요』에 보면 "은행껍데기에 세모난 것이 수 은행이요, 두모 난 것이 암 은행이다"라고 적고 있다. 은행나무는 암, 수나무가 있는데, 서로 마주 바라보고만 있어도 사랑의 결실이 오간다고 한다.

칠석날은 견우직녀가 은하를 가로질러 상봉하는 날이다. 이날 밤 아가씨들은 걸교(乞巧)라 하여 반원형의 달떡을 빚어 놓고 베 짜는 솜씨와 바느질 솜씨를 비는 민속이 있었다. 그런데 재주를 비는 걸교는 명분이고, 실속은 마음먹은 사람을 움직이게 해 달라거나 시집가게 해달라는 사랑의 기도였음은 옛 잡가(雜歌)나 속요(俗謠)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조상들은 축제를 열어
마을의 안녕과 화합, 풍년을
기원했다.

한때 달마다 14일을 기념일로 정해 선물을 주고받는 14일 포틴데이가 유행하면서
제과업체, 결혼정보 업체 등이 매월 14일의 높은 매출을 겨냥한 “데이 마케팅”이 성행했다.
이 중 대표적인 날이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이다. 밸런타인데이는 80년대 중반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전통 명절 못지않게 기념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젊은이들의 욕구를 악용하려는 상흔이 빚어낸
그릇된 사회현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남녀가 특정 일을 이용해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젊은이들의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등의 포틴데이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정착되고 있기에, 이와 같은 각종 연중행사도 오늘날
전통세시의 연장 선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축제

마을 축제는 생활을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 혹은 생산과 노동의 농사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벌이는 제사이자 잔치이며 놀이다. 마을 축제는 정초나 단오 백중 등 명절에 많이
행한다. 경사나 제사를 위해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큰굿, 큰잔치, 대동 놀이라고 한다. 몇
사람이나 가족들의 놀이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야말로 마을 사회의 창조적
의식이며, 민중들의 즐거운 몸짓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축제 또는 마을굿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무당이나 마을풍물패 혹은 마을
사람들이 뽑은 제관 등이 중심이 되어 거행한다. 마을 축제는 제사 의식-지신밟기-놀이-
뒤풀이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서낭신이나 산신 당산 할아버지 등 마을을 지켜주는
마을수호신께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빈다. 그다음은
제사를 통해 신의 강림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울리면서 공동우물이나 동사 집집을
돌며 지신을 밟는다. 성주신(마루), 삼신(안방), 조왕신(부엌) 등에서 집안의 평안과 무병을
기원한다. 지신밟기가 끝나면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풍물패가 중심이 되는 판 놀이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는 줄다리기도 한다. 놀이가 끝나면 마을 사람 모두가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즐기는 뒤풀이를 한다. 뒤풀이를 통하여 쌓인 한이나 감정의 응어리,
상호 간의 불화와 반목은 해소되고 협동 의식이 싹튼다.

마을 축제가 끝나면 그 마을은 정화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 부정과
불합리한 묵은 삶은 사라지고 신성하고 밝은 생활이 열리게 된다. 농사는 풍년이 들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화목해진다.

천진기

대학 시절까지 경북 안동에서 지냈다. 안동대 민속학과와 영남대 대학원 문화인류학 석사-중앙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민속학 전공)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1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문화재관리국 예능민속연구실 등에서 근무했고, 2005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을 거쳐
2011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전주박물관장으로 일했다. 논문으로 '한국 띠동물 상징체계 연구'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 <한국동물민속론>, <중요무형문화재-(2)연극과
놀이>(공저) 등이 있다.

길라잡이 — 달항아리는 오늘날 어떻게 한국미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달을 품은 항아리'에서는 예술인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는 달항아리의 온화한 매력을 칼럼, 인터뷰, 에세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의 달항아리 공간

달을 품은 항아리 1

한국미의 아이돌 '달항아리'는 현대의 산물

글·사진 문소영

새로 단장한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실에는 관람객의 힐링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사진1)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가 고즈넉이 놓여있고 그 뒤로 미디어아트가 비치는데, 하얀 보름달이 눈 쌓인 나뭇가지 위에 동실 떠 있기도 하고 잔잔한 물에 빛을 퍼뜨리기도 한다. 백자와 달이 절묘한 한 쌍을 이루며 관람객을 순하고 맑은 시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런데 만약 이 항아리가 10여 년 전처럼 '백자대호'로 계속 불리고 있었다면 이런 감성 연출을 생각해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달항아리'가 공식 명칭이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이 '백자대호' 7건(국보3건, 보물4건)의 명칭을 모두 '백자 달항아리'로 변경한 것이 2011년 12월이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 붙여 완성하는 커다랗고 둥근 유백색 항아리가 나타난 것은 17세기 말-18세기 초 조선에서부터지만 이 항아리를 '달항아리'라는 부른 예는 20세기 전반까지도 없었다. 그럼 '달항아리'라는 이름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창조한 사람은 현대미술 거장 김환기(1913~1974)라고도 하고 김환기의 절친이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었던 최순우(1916~1984)라고도 한다.

김환기는 1950년대부터 둥그런 백자 항아리를 파란 보름달과 짝지어서 그리곤 했다. (사진2) 항아리를 달에 비유한 시와 수필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조 항아리'(1946)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지평선 위에 항아리가 둥그렇게 앉아 있다. 굽이 좁다 못해 동실 떠 있다." 그래서 '달항아리'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이 바로 김환기라고 추정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김환기가 그림 제목과 글에서 '달항아리'라는 신조어를 쓴 예는 없다. 그 신조어가 지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최순우의 1963년 신문 칼럼에서다. "오늘 백발이 성성한 어느 노 감사가 한 분이 찾아와서 시원하고 부드럽게 생긴 큰 유백색 달항아리 하나를 어루만져보고는 혼잣말처럼 '잘생긴 며느리 같구나'하고 자못 즐거운 눈치였다."



2018년 대구미술관에서 달과 백자 항아리를 찍지는 김환기의 그림을 보는 관람객

그런데 최순우의 칼럼 뒷부분에 김환기의 항아리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달항아리'라는 이름과 그 미학을 정립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달항아리'라는 이름은 바로 보편화되지 않다가 1990년대부터 조금씩 사용이 늘었고 2000년대부터 활발히 쓰이기 시작했다. 사진작가 구본창, 설치미술가 강익중 등 동시대 미술가들이 달항아리를 모티프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권대섭 등 동시대 도예가들이 달항아리를 제작했으며,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단체전이 여러 차례 기획되어 열린 영향이었다. 게다가 2000년 런던의 영국박물관(대영박물관 The British Museum)이 한국실을 개관하면서 주요 유물로서 18세기 조선 백자 달항아리를 'Moon Jar(달항아리)'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이 항아리는 영국 도예가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 1887-1979)가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구입해 소유했던 것이었다.

이 낭만적인 이름이 한몫해서 달항아리는 영국박물관의 인기 유물로 떠오르고 알렉스 보통 같은 유럽 문인·예술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국박물관은 달항아리가 리치와 영국 도예에 끼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국내 언론과 저자들이 인용하면서 달항아리는 '외국에 선보일 한국 미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2005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전으로 '백자 달항아리전'을 연 것도 전환점이었다. 국립박물관이 달항아리라는 명칭을 전시 공식 제목에 쓴 게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의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전시 도록 서문에 달항아리는 "한국미의 극치"라고 썼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달항아리'라는 이름은 보편화되고 달항아리는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아이돌(우상)로 자리 잡았다.

이제 K-pop 아이들도 이 전통예술 아이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팬들을 위해 직접 가구를 그려 넣은 '아미(BTS 팬덤)의 방' 그림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리더인 RM은 달항아리와 사방탁자를 그려 넣고 "푸근한 느낌의 달항아리의 곡선, 사방탁자의 직선이 어우러져 아미 여러분에게 다채로운 편안함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만약 "푸근한 느낌의 백자대호"라고 했다면, 푸근하긴커녕 얼마나 딱딱했겠는가. 이것이 네이밍의 힘이다.

그러니 달항아리는 어찌 보면 현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름에서, 그리고 또한 그 미학에 있어서. 달항아리에 으레 붙는 수식어 '소박함' '백색의 미' '자연스럽게 나온 일그러짐의 아름다움'은 사실 일제강점기에 미술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가 조선백자의 특징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성립한 달항아리 미학은 한국의 예술가·평론가들이 야나기를 수용하는 동시에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야나기는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일상용품으로서의 공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에서 민예 운동을 일으켰다. 같은 맥락에서 조선 백성의 일상용기 백자에 주목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다. 야나기는 바로 영국박물관 달항아리를 구입한 버나드 리치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영국박물관은 리치를 비롯한 서구 예술가들이 조선 백자의 가치에 눈뜨게 한 장본인으로서 야나기를 언급하고 있다. 김환기와 최순우가 달항아리의 매력에 눈 뜨게 된 것도 야나기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야나기는 조선의 미를 수동적인 "비애의 미"로 규정해서 훗날 반발을 사게 됐다. 야나기는 조선 항아리가 몸체에 비해 굽이 작은 것을 가리켜 "안정도가 상실된 것"이며 지상에 몸을 붙이지 못하는 "민족이 경험한 괴로움과 슬픔"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김환기는 달항아리의 굽이 작은 것을 "현대미술의 전위"로 여겼다. 그는 건축가 김중업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백자를 현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의 건물에 비기기도 했다. 아마도 르 코르뷔지에 건축의 특징인 필로티(개방된 공간에 서 있는 기둥들 위에 건물을 세워 지상에서 건물을 분리한 것)를 보며 자신이 "굽이 좁다 못해 동실 떠 있다"고 한 달항아리의 독특한 형태를 떠올렸을 것이다. 김환기는 달항아리의 좁은 굽에서 야나기처럼 "비애의 미"를 보는 대신 아방가르드 정신을 본 것이다.

지금 달항아리가 한국미의 아이콘이 된 배경에는 이렇게 치열한 미학적 담론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달항아리는 그 이름에서, 또 그 미학에서, 단지 전통 유물이 아닌 현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철학과 감성을 결합한 최고의 브랜딩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소영
코리아중앙데일리(중앙일보 영어신문) 문화부장, 미술전문기자, 성신여대 미대 전 겸임교수. 저서로 『그림 속 경제학』(2014), 『명화독서』(2018), 『광대하고 게으르게』(2019) 등이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학·석사, 런던대 골드스미스컬리지 문화학 석사, 홍익대 예술학과 박사 과정 중. 현재 중앙일보에서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칼럼을, 중앙SUNDAY에서 '영감의 원천'을 연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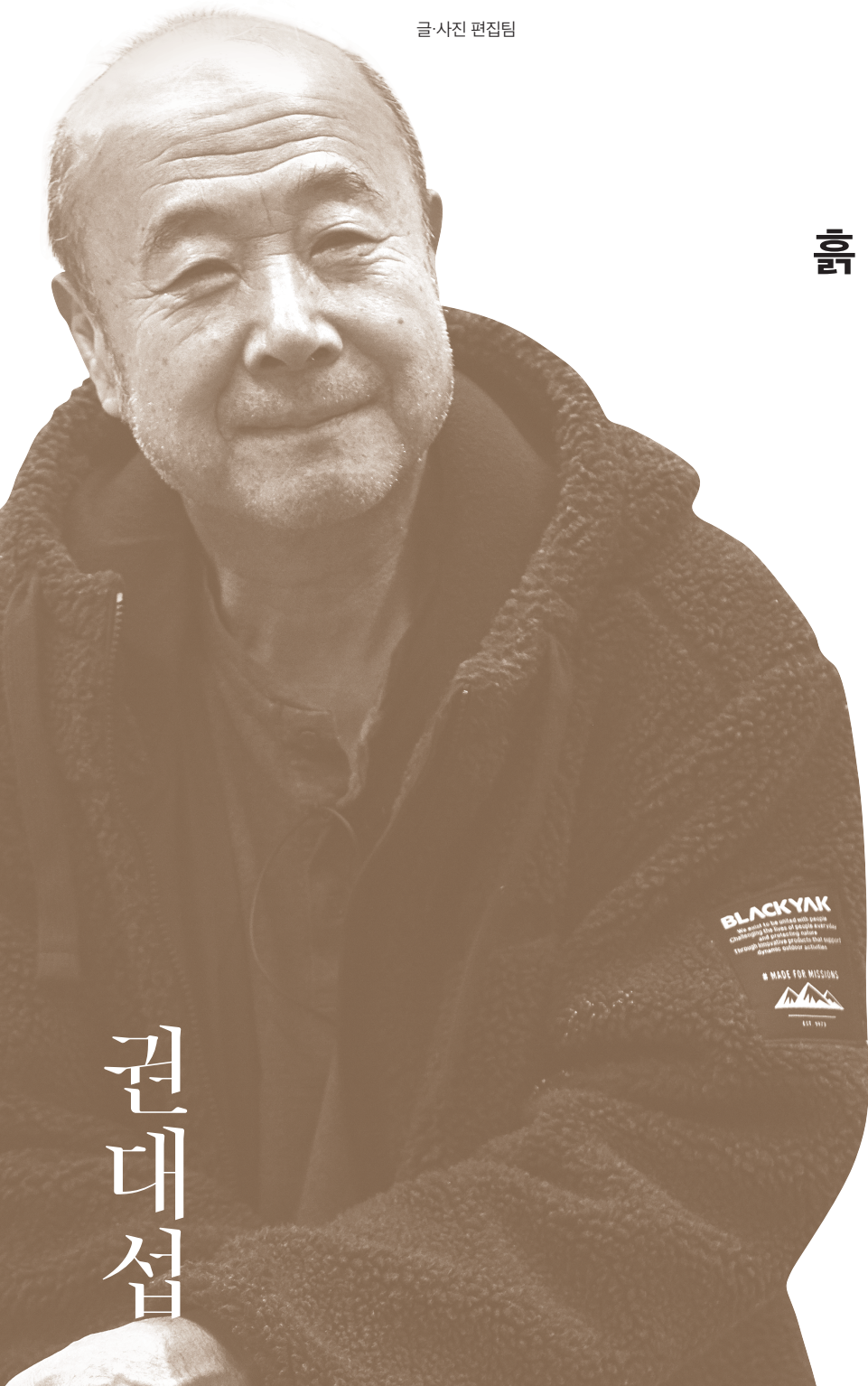
완벽한 원을 향해 가다 문득 놓아버리는 순간, 우주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원의 형태와 빛깔이 탄생한다. 달과 똑 닮은 은은한 광채와 볼수록 편안한 매력은 시간이 지나며 그 아름다움과 깊이를 더해간다.
달항아리를 만드는 두 작가를 만났다. 경기도 광주에 터를 잡고 가마를 지어 수십 년간 우윳빛 원형의 백자 달항아리를 빚어온 도예가 권대섭, 창조하는 일에 운명처럼 이끌려 본업을 전환하여 목공을 배우고 나무로 달항아리를 만들어온 작가 김규. 다루는 재료의 물성만큼이나 작품에 투영하는 철학과 관점도 다르지만, 제작과정에 대한 거듭되는 연구와 달항아리를 닮아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만큼은 비슷하게 느껴지는 두 사람이었다.

글·사진 편집팀

흙으로 빚은

나무로 지은

달과



권대섭

BLACKYAK
We want to be mixed with people
Challenge the way of people every day
and producing value
through innovative products that support
dynamic outdoor activities
MADE FOR MISSIONS
EST. 1913



김규



권대섭 작가의 광주 작업실 내부

공간
-
너른 품의 강과
풍경이 따스한 동네

흙을 만지고 가마를 다루는 도예가에게 작업공간이란 작품의 모태라 비유할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언제 어떻게 지금의 작업실에 터를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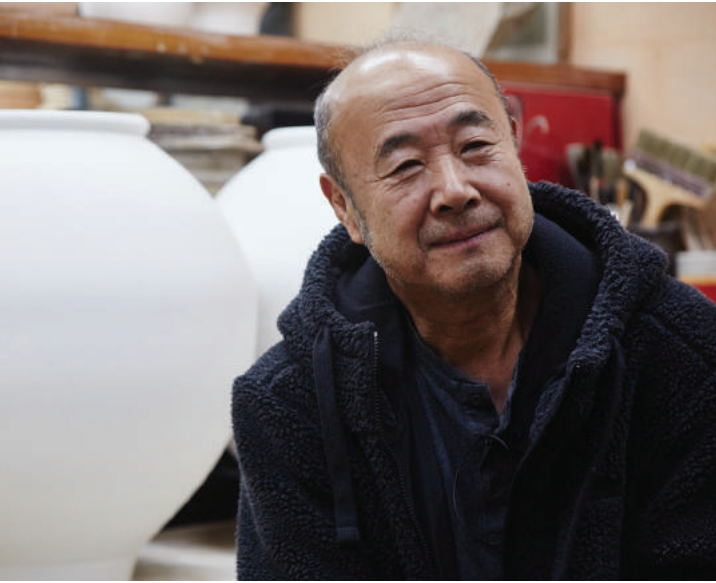
권대섭 경기도 광주에 1986년부터 자리 잡고 살았어요. 광주와 이천은 우리나라 도자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인데, 이유는 한강을 통해 재료를 수급하고 완성품을 서울로 싣고 나가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서울은 땅값도 비싸고 가마에서 불을 때면 연기도 많이 나니 말하자면 외곽으로 피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기왕이면 가장 역사적인 장소로 오고 싶었어.

작업실에 방문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작업공간은 작가의 작품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일텐데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작업실을 선택하셨나요?

김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넓은 지하 작업실이 있었는데, 지하라서 계절감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다음 작업실은 집에서 떨어져 있고 한적하며, 바깥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면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방배동 거리는 많이 붐비지 않고, 또 마냥 한적하지만은 않아서 적당한 밀도의 인구와 오손도손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김규 작가의 방배동 작업실 입구



달항아리를 다루는 챗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백자 달항아리를 처음 만들기로 결심한 시기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권대섭 서양화를 전공하던 학부 시절, 인사동을 지나다 처음 달항아리를 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요. 당시의 충격과 감동을 계기로 도예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양화와 도예는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서양화를 그리다 도자기를 만들면서 재료만 바뀐 것뿐이지, 표현하고자 하는 미감은 같았어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워야 했기에,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체류 기간 제한으로 5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기술을 익혔어요. 스승님이 하도 엄격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배웠고, 가마에 굽는 작업은 몇 번 하지도 못했어요. 청소를 가장 많이 했죠.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청소를 했던 게 기억에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칼로 표면을 깎으며 항아리의 형태를 만드는 권대섭 작가

행 : 공예정 | 나라바

시 작
-
운 명
-
갈 은
-
만 남

공정 - 종으로 돌며 채워지는 달과 횡으로 돌며 깎이는 달



달항아리라 하면 흔히 조선백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소재로 달항아리를 처음 만들기로 결심한 시기와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규 처음부터 나무 작업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공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다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 창조하는 것에 운명처럼 이끌려 목공을 배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달항아리를 만들기 전부터 달을 좋아했고, 백자 달항아리의 형태를 보고 제가 다루는 나무로 달항아리를 만들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무 달항아리는 2016년부터 시도해서 첫 전시를 2019년 봄에 열었어요. 만드는 데에 오랜 시간과 공을 들였죠.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면을 완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나무를 깎고 또 깎다가 완성품이 아주 작아지기도 했어요.



목선반에 통나무의 외형을 돌려가며 초벌하는 김규 작가



독자들은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달항아리를 만들 때 쓰는 재료와, 어떤 과정과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대섭 쉽게 설명하면, 도자기는 흙으로 형태를 만들어 굽고 유리 코팅을 해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달항아리는 큰 사발 두 개를 만들고, 젖어있을 때 올려서 맞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말려가며 표면을 칼로 살살 깎아 매끄럽게 만들어요. 똑같은 작업을 몇십 년씩 하니 무너지지는 않고,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게 기술이죠.

도자기의 두께는 물레를 돌리며 적당하게 조절해요. 직접 사용하는 물건일 적에는 가벼우면 좋았겠지만, 너무 얇으면 가마에서 구울 때 도자기가 휘어지거나 형태가 무너지고 반대로 두꺼우면 가마 안에서 갈라지기에 두께가 적당해야 하죠. 도자기는 두 번 구워서 완성하는데, 초벌 *소성 후에 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더 구우면 완성이 됩니다. 백자를 만드는 카올린(kaoлин) 재료를 안정적으로 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시로 좋은 재료를 찾아 국내산과 외국산 등 이런저런 백토를 찾아 사용해요. 흙을 배합할 때는 '마약'을 써요. 영업상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웃음)

*소성 : 열로 점토를 굳히는 과정

물레로 항아리의 두께를 조절하는 권대섭 작가



목선반 위 항아리의 두께를 조절하는 김규 작가

독자분들이 목공예 과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재를 즐겨 사용하고 어떠한 과정과 원리로 달항아리가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규 흙을 빚는 물레는 수직을 축으로 돈다면, 나무 작업을 하는 목선반은 수평을 축으로 돌아가요. 통나무 외형을 돌려가며 속을 파서 초벌을 합니다. 옆으로 누운 달항아리를 조각도로 깎아내는데, 이때 나무가 크니 흔들림 없이 균형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초벌 후에는 칼과 사포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항아리의 두께는 제가 느끼기에 알맞은 질량과 촉감이 유지되는 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도자기처럼 얇게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내구성과 무게감이 아쉬웠어요. 달항아리를 만들기 전엔 다양한 나무를 재료로 사용했어요. 화려한 무늬와 좋은 색감이 나오면 재미가 있었죠. 그런데 달항아리 작업을 하며 대부분 우리나라 나무만 써요. 여기서 나고 자란 것처럼 한국에서 자란 나무로 작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나무도 지역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나무는 화려하지 않지만 순하고 단단한 매력이 있어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는 데다 가볍고 튼튼해서 가구 재료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또, 작업실에 은행나무로 만든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은행 냄새 때문에 기피되는 가로수인 은행나무가 사실은 쥐라기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우월한 종이에요.

관념
-
나에게
가장 완벽한
달항아리



권대섭, 달항아리
2021, White porcelain, 42x42x46 cm
© JOHYUN GALLERY

선생님께서 부수지 않고 남겨두는 달항아리는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생각하시는 가장 완벽한 달항아리란 무엇일까요?

권대섭 아직 완벽한 달항아리는 못 만들었어요. 만든 것 중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건 있었죠. 늘 더 좋은 달항아리가 다음 가마에서 나오리라고 기대해요. 저는 색이나 형태에 기준을 두기보다, 전체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미감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색을 특징지어 이 색이 좋다, 이것이 원형이다. 라는 기준을 두지는 않아요. 작품의 디테일은 규격화된 정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달항아리를 만들 때는 모든 단계에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공들여요. 흙과 장작 등 들어가는 재료가 상당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작업하기에 단계마다 신중하게 작업을 하죠. 구워지고 나면 재료로는 두 번 다시 쓸 수 없거든요. 작가마다 완성된 작품을 깨고 깨지 않고는 개인차라고 할까요. 작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완벽하지 않다 생각이 들면 완성된 도자기를 깨뜨릴 수는 있어요. 반대로 약간 문제가 있어도 본인 기준에서 작품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권대섭, 달항아리 © JOHYUN GALLERY





작가님이 만든 것 중 가장 완벽한 달항아리는 어떤 것일까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규 완벽한 달항아리의 기준을 두지는 않아요. 요즘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달항아리(사진)를 지금 가장 좋아해요. 작가마다 선호하는 모양이 있고, 모양을 보면 누구 작품인지 안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그때그때 비례가 달라져요.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나오면 진열대 한 귀퉁이에 놓아두고 이따금 가만히 바라보곤 해요. 그렇게 두고 보다 보면 작품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뻐 보이지 않으면 모아뒀다가 땅속에 파묻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요. 그래도 오랜 시간 마음을 준 작품인데,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작업 과정 중 어떤 작품은 본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해요. 깎아내는 것이니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크기는 더 작아지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마음을 비우고, 작은 잔이나 납작한 그릇의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작업실 선반 위에 김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크고 작은 나무 달항아리들이 빼곡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도 놓아두고 오랜 시간을 들여 바라보고 만지다,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린다. 화학가공을 하지 않은 나무들은 흙으로 돌아가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된다.

김규 | Jocker



김규 | new wood age_07



달항아리의
매력
-
탐나는 그것



권대섭, 달항아리
© JOHYUN GALLERY

달항아리의 매력으로 단순함, 소박함, 무작위성 등 여러 가지를 꼽고는 하는데요. 직접 작품을 만드는 작가님은 달항아리의 매력이 무엇이라 느끼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대섭 뭐, 작품을 가져봐야 알죠. (웃음) 달항아리의 매력으로 꼽는 무작위성이라는 단어는 1세대 평론가들로부터 많이 거론되던 일본식 용어인데, 달항아리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무작위라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제작과정 모든 단계에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공들여 나온 작위적 결과물이죠. 달항아리는 작가의 개별적 의도뿐 아니라 완성품의 미감과 기법의 섬세한 차이가 응축되어 완성되며, 단순함과 소박함 이상의 현대적 가치가 잘 드러나요.

백자달항아리의 매력을 단순, 소박, 무작위성이라는 세 단어로 꼽은 기사를 접한 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달항아리의 매력을 말씀해주신다면요?

김규 저는 나무 자체의 질감과 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매끈하게, 또 어떤 것은 거칠고 털이 난 감촉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무에 털이 난 듯한 거친 느낌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각기 다른 그 감촉이 제 나무 달항아리를 보는 이들에게는 많이 만져보시도록 권하고, 안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한번은 첫 전시 때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분을 만난 후 작품을 만졌을 때 어떤 촉감이 느껴질지를 상상하며 표면을 더 많이 만지며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김규, sunset



영감의 원천

-

이끌려

반하다



권대섭 작가의 소품 작업들

BTS 멤버가 선생님의 달항아리를 샀다는 이야기로 한때 떠들썩했어요. 또 김환기 화백이나 최순우 선생님도 달항아리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직접 달항아리를 만드는 선생님께 조심스레 꼭 여쭙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달항아리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권대섭 BTS의 RM이라는 친구가 내 달항아리를 샀다며 사람들이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나는 BTS를 잘 몰라서 RM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남들이 서태지만큼 유명하다고 했어요. (웃음) 아무튼 좋은 일이지요. 젊은 친구들이 달항아리에 관심을 두고 나에 대해 그리고 우리 도자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왔다는 것에 놀랐어요.

사람들이 달항아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의 심성 안에 선천적으로 예술을 좋아하는 DNA가 있어서가 아닐까 해요. 일부 수집가들에게는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도 하지만, 작가의 작업 목표가 꼭 돈은 아니에요.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는 측면이 강해요. 가난해야 예술을 한다는 건 다 옛말이지요. 애들도 키우고 생활도 해야 하니까. 또, 가마도 수명이 있어서 5년에 한 번씩 새로 지어야 하고, 재료도 비싸거든요.

김환기 화백과 최순우 선생님 등 유명 작가들의 달항아리에 대한 애정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지요. 김환기 화백도 그랬지만 작가님처럼 백자 달항아리를 본인의 예술 언어로 재해석하는 여러 작가도 있고요. 작가들이 달항아리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사람들이 달항아리를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규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달항아리의 의외의 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엄격함과 어긋난 자유로움이 공존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사출된 상품들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날 어떤 각도로 보느냐,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의식과 행위

-

익숙함 속의 새로움,

마지막에 생성되는 입구

달항아리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이나 바람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나요? 혹시 흙을 만질 때나 가마에 불을 지필 때, 굽기 위해 넣을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순서나 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대섭 작업 과정은 늘 똑같아요.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지만 가마 안에 들어가면 절반은 꼭 터져서 나오죠. 가마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달항아리가 네 개인데, 두 개는 꼭 망가져서 나와요. 그 똑같아 보이는 일련의 과정에 매일 조금씩 변화를 추구합니다. 저는 항상 진보하고 싶어요. 그건 네 개 중에 세 개의 항아리가 잘 나와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늘 같은 것을 만드는 듯 보여도, 항상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려는 진보를 생각해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위로는 수집 취미에서 나와요. 경기도 광주에 처음 내려와 살 때는 틈만 나면 *사용원 자리의 백자 조각을 주우러 어린 딸과 함께 다녔고, 지금은 주말에 전국 각지에 백자 골동품을 찾으러 다녀요. 몇십 년 동안 같은 걸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이 취미 덕분에 새로운 걸 보며 공부도 되고, 새로 한 번 더해볼 힘을 얻죠.

*사용원 : 광주 일대에서 조선 후기까지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백자를 제작하는 일을 관리하는 관청. 본래 궁중에 음식을 공급하는 일을 관장하였으나, 백자 수요의 증가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왕실 및 관청용 그릇 제작을 직접 주관하는 기관으로 정착하였다.

나무 달항아리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이나 바람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나요? 또, 특별히 신경 쓰는 순서나 의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규 저는 형태를 먼저 그린 후 작업에 착수하는데, 처음 생각한 대로 작품이 잘 나오길 바라며 시작해요. 대략적인 항아리 형태를 잡은 다음 가장 마지막에 입구를 정하는데, 이때 신경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듬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죠. 나무 상태에 따라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을 하다가 기다렸다 하기를 반복해요. 작업 자체를 서두르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 천천히 여러 개를 동시에 만지면서 마음에 들 때까지 작업합니다.

예전에는 운동도 했었는데, 작업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작업에만 빠져있는 중이에요. 나무로 떡살을 만드는 법, 화문석 짜는 기술, 새로운 나무 가공 방식 등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재미있는 작업이 나와요.

화문석을 만드는 재료인 완초로 깨진 나무를 꿰매어 완성한 김규 작가의 작품



일상

-

하루와 한달,
그리고 일년

선생님의 일상에서, 도예가로서의 하루의 일과와 일 년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권대섭 맨날 똑같아요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뜨는 해를 보면서 만들고, 오전 중에 작업을 끝내려고 해요. 점심 먹고 퇴근인 거죠. 주말과 공휴일, 비 오는 날은 작업을 쉬어요. 비 오는 날은 우울하기도 하고 습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핑계지요. (웃음) 어쨌든 작가도 자기 루틴이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만들면 달항아리는 한 달 반 걸려서 2개 정도 완성된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일 년으로 보면, 제가 추운 걸 싫어해서 겨울에는 작업을 많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흙이 얼어서 제약이 좀 있고요. 옛날에는 얼음이 얼면 작업을 멈췄다가 얼음이 녹으면 다시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겨울엔 작업 안 했다는 말이죠.

권대섭 작가의 작업실 가마



김규 작가가 작업에 사용하는 목재

목공예가로서의 하루의 일과와 일 년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김규 작가로 살면서 가장 큰 장점이 일상과 작업 시간을 저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책임, 특히 불규칙한 수입이 뒤따르죠. 작업실에는 아침에 올 때도 있고, 해 질 녘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작업실에 도착하면 일단 차를 끓여 마시고 작업 준비를 해요. 머뭇거릴 때도 있고, 바로 시작할 때도 있고요. 작업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 휴식 시간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 달항아리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헤아려 정량화하기란 조금 어려워요. 많은 때는 한 번에 열 개를 동시에 작업한 적도 있는데, 각 작품에 따라 다 끝나다가 멈추기도 하고 깎다가 계속 보기만 하기도 해서 작업 속도가 더딘 편이에요.

연간으로 보면, 전시 외에도 프로젝트별로 시간을 관리하고 잘 분배해서 지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바람

-

유쾌함과

유연함 사이

마지막으로 이 챗터가 바람에 대한 구성이에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권대섭 내가 만든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유쾌해지면 좋겠어요.
예술적 의미 이전에 각박한 세상에서 달항아리를 보고
즐거워진다면 바람 게 없습니다. 다들 돈도 많이 벌고요! 달항아리를
과거에는 백자대호라 하였는데, 백자대호에 예전에는 술을 담았다
하더라고요. 무얼 담아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달항아리를 걸어 두고
늘 기분 좋아졌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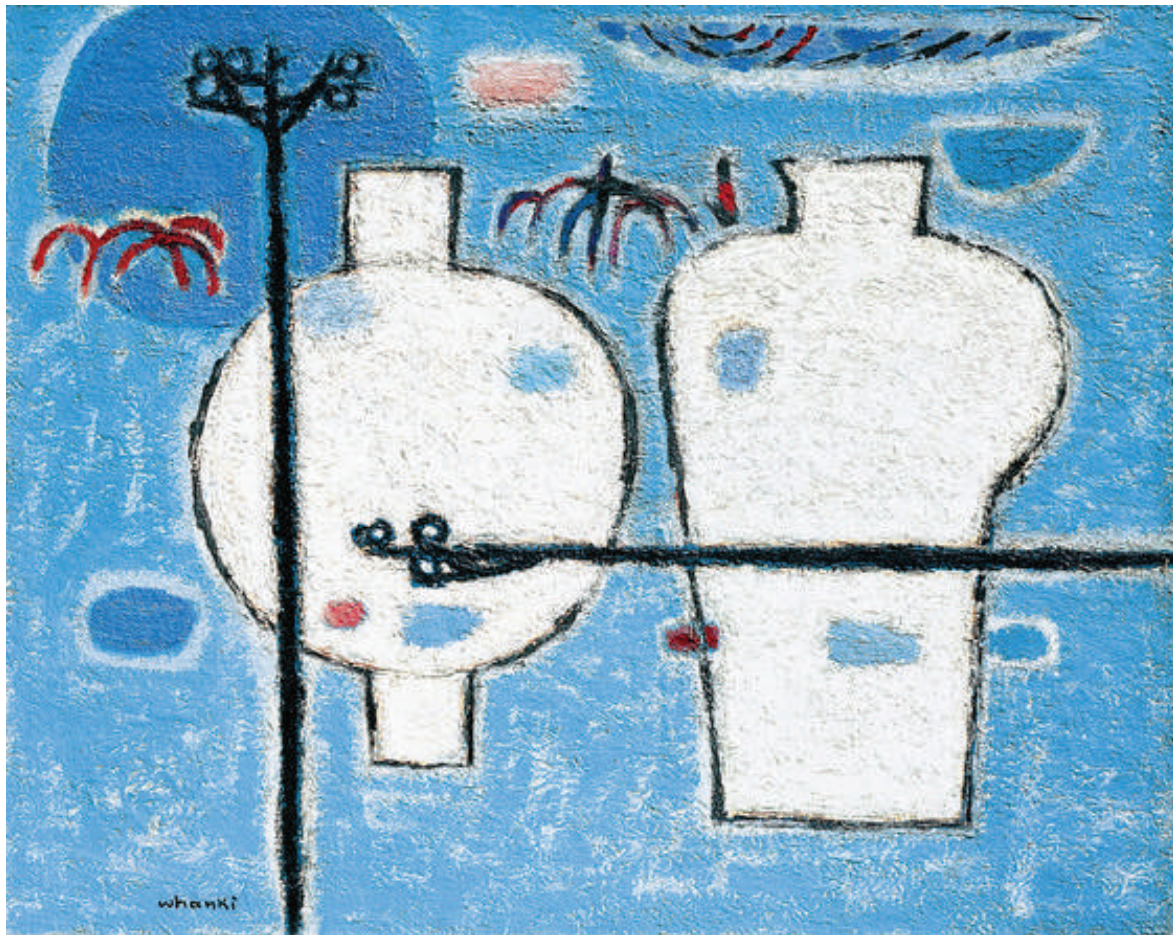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챗터가 바람에 대한 구성이에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김규 좀 더 포용력이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작품이 어딘가에서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곁에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와 다시 문득 반갑고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달항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림에 부치는 편지, 김환기의 '달향아리'

글. 서지형



향아리

1955-56년, 캔버스에 유채, 65*80cm
© 환기재단·환기미술관

가격을 매기지 않은 그림

팔리지 않을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림에다 가격을 안 붙이기로 했다. 예측대로 그림은 한 폭도 팔리지 않았고 전람회는 무사히 끝났다. 전람회가 끝나고 오는 것은 으레 피로 뿐 이요, 고독과 허무 뿐 이었다. 왜 전람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무제 I' 중에서

현재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가 쓴 <팔리지 않는 그림> 이야기는 135억 환기 그림 앞에서 머쓱한 느낌을 줍니다. 김환기 스스로 칭찬 호 수화(樹話)는 '나무와 말을 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작가가 고민해서 선택한 호만 봐도 나무처럼 키 크고, 부드럽지만 강하며,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가 작품이 팔리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아채고 그림에 가격을 붙이지 않겠다고 한 것이 놀라워요.

작업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업을 이어 나간 그의 작품이 빛을 볼 때 즈음인 1974년, 그는 생전 그와 친분을 맺었던 이중섭 등 동료 화가와 문인들 곁으로 갔습니다. 환기 말년의 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제목처럼 우주 어딘가로 떠난 것이죠. 그는 1913년에 태어나 피란 생활의 가난함과 척박함을 이겨냈고 이후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 하며 가족의 생계 부양도 책임졌습니다. 고단해 보이는 삶 안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달향아리 수집이었어요. 몇십 번의 밥값을 기꺼이 지불한 달향아리 모으기 취미는 전쟁 전후 젊은 예술가들이 짊어졌던 삶의 무게와 비교해 생존과 맞바꾼 취미생활로 결코 가벼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김환기는 전 생애를 통해 백자 향아리, 목가구 등 전통 기물을 수집하고 완상하며 한국미에 심취한 작가입니다. 점, 선, 면의 조형 요소들로 화면을 채우다가 하면 달향아리, 매화, 산월 등 자연을 소재로 한 반추상 작업을 하였는데, 특히 달향아리는 많은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켰어요. 1940~1950년대의 구상회화와 1960~1970년대 말년의 추상적 접화에서 백자의 단아함과 푸른빛의 투명하면서도 깊은 여운이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그는 "내가 그리는 모두가 도자기에서 오는 것들이요, 빛깔 또한 그러하다"라 말하며 작업과 수집을 병행합니다.

사랑해
마지막
물건

좁은 집에 골치가 아닐 수 없어 이젠 다시 향아리를 사들이지 않아야 겠다고 몇 번이고 결심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나가면 자연히 골동품 가게로 발길이 향해졌다. 들르면 으레 한두 개 점을 찍고 나오게 됐으니 흡사 내 향아리 취미는 아편 중독에 지지 않았다.

...
나는 향아리 값을 깎아서 사본 적이 없다. 부르는 대로 사고 난 심경은 항상 황재한 생각뿐이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사지 않나 싶어 민족에 대한 원한 같은 마음으로 마구 사들였는지도 모른다.

-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향아리' 중에서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그 아무도 사랑하지 않게 돼’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아요. 프랑스 소설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문장인데 김환기의 달향아리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취미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미’와 ‘진지한 취미’인데요. 환기의 달향아리 모으기는 진지한 취미에 속하죠. 밥을 먹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밥도 굶고 내 것을 모두 내어준 후 달향아리를 곁에 두겠다는 굳은 마음은 평범한 취미를 넘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진지한 취미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지한 취미는 취미를 넘어 새로운 직업으로 또는 경제적 가치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리미티드 에디션에 손에 넣거나,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물건을 손에 넣은 후 파는 경우가 이러한 거듭나는 기회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목의 성장과 진지한 취미는 자신을 위한 강력한 취미이자 경제적 효과도 지니게 된다는 말이지요.

잃어버린
자리를 채운
그리움

부산 피난살이 3년 만에 내 집 뜰에 들어서니 우거진 난초속이 온통 향아리의 파편 천지였다. 사금파리 무더기에 서서 나는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 무엇인지 통쾌한 그런 심정이었다. 그 후 나는 다시 향아리에 손대지 않았다. 한두 개 요행이 남아 굴러다니는 것을 주워 적당히 두고 보는데 안심하고 있다.

-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향아리' 중에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을 한순간에 잃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김환기는 전쟁 중에 그렇게 아끼던 달향아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단 한 개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렸으니 차라리 통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너무 집착하던 일이 한순간 사라져버리면 낙담보다는 자유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요? 달향아리 사금파리 무덤을 목격한 후 김환기는 드디어 진짜배기 컬렉터가 되었던 거죠. 소유하지 않고도 사랑하며 달향아리를 예찬하는 글을 남기기 시작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는 달향아리의 결점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동글다 해서 다 같지 않고, 흰 빛깔이 다 다르다네요. 그렇게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미를 발산할 수가 없으며, 고요하지만 움직임이 있다 칭찬합니다. 싸늘한 사기지만 그 살결에는 따사로운 온도가 있다며 조형미의 극치를 예찬했지요. 특히, 달향아리의 평범함을 높이 사는데 어떠한 기교로 탄생한 향아리가 아닌 기교와 제조 계획 없이 일반 사람들이 생활 용기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죠. 물건을 넘어서 애착 관계가 그의 그림과 글로 표현된 것을 보다 보면 환기에게는 미안하지만 달향아리가 사금파리 무덤이 되어버린 게 잘 되었다 싶어요. 가질 수 없었던 달향아리에 대한 동경이 그림과 글로 재창조되었으니까요.



향아리와 매화가지
1958, 캔버스에 유채, 58×80cm
© 환기재단·환기미술관

취미마저

꼭 닳은 부부



파리에서 김환기·김향안 부부 (1957년)

백자 항아리는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오르내리는 길목 개울 건너 그 집 장독대에서 유별나게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어떤 날은 항아리 위치가 바뀌기도 했다. ... 그러다가 어떤 날 항아리가 아주 안 보이는 날이 있었다. 그날 나는 종일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한 것처럼 허전했다. 다음날 그것을 다시 발견했을 때 어찌나 반갑던지. 그 후로는 나도 모르게 그 항아리에게로 마음이 끌렸다. 대체 저 집 주인은 저 항아리한테 관심이 있는 것일까. ... 그저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보관하는 의무를 느끼는 것이 가장 순수한 미학의 길일 것이다.

- 김향안 「월하의 마음」의 '백자 항아리' 중에서

스스로가 궁금하다면,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내가 자주 만나는 다섯 명의 평균이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이들이 나의 거울이듯, 김환기 곁에는 그의 아내 김향안이라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취미도 똑 닳았더군요. 김향안은 시인 이상이 요절한 후 환기의 부인이 되었는데, 본명은 변동림입니다. 한 시대에 두 명의 예술가를 품은 여인의 인생이 궁금해서 그녀가 쓴 수필집 「월하의 마음」을 읽다 보니 부부가 함께 사랑한 달항아리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환기의 글도 좋지만 김향안의 글을 읽다 보면 가족을 끊임없이 돌보며 살아가지만 당시 신여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장마다 잘 담겨있답니다. 특히 옆집 달항아리를 연모하는 듯한 그녀 글을 읽으면 부부가 진정 피란을 겪은 사람들이 맞나 싶어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 어두운 시절에 예술을 하며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나 싶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부부가 합심하여 모은 달항아리를 피란으로 인해 모두 잃어버린 후 더 이상 달항아리를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애처로워요. 내가 그이의 친구라면 빛을 내서라도 달항아리 하나 품속에 안겨주고 오고 싶어요. 개울 건너 어느 집 달항아리의 위치 변화를 주시하며 달항아리의 안부에 온 힘을 기울이는 김향안을 보면 내 물건도 아니요, 갖지도 못할 것에 마음 두는 모습이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문득 글을 읽다 행간에 멈춰서 생각하기를 저러다 남의 물건이 제 물건인 양 잠시 미처 훑쳐 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었어요. 김향안의 글을 읽다 덩달아 나도 개울 건너 그 집 장독대 위 달항아리에 온 신경이 곤두섰다 말았네요. 컬렉터로 살아가는 마음은 삶을 청명하고 명량하게 만드는 요소를 품고 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았고요.

안목이 있어야 보이는

본질과 가치

미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기 전에 아름다운 것을 알아내야 한다. 아름다운 것에 무감각한 미술가가 있을까. 미술가는 눈으로 산다. 우리들은 눈을 가졌으며, 만물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일까? 옥석을 분별 못한다는 말이 있다. 돌 틈에서 옥을 발견해 낸다는 것은 하나의 창조자의 일이다.

-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편편상 片片想' 중에서



향아리와 날으는 새
1958년, 캔버스에 유채, 72*52cm
© 환기재단·환기미술관

김환기가 프랑스에서 작업할 당시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뿐 아니라 멀리서 보면 한국의 정체성이 더 잘 보였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달항아리를 곁에 둬으로써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작업할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전쟁으로 약탈은 일어날 수 있지만 좋은 것을 알아내는 그 안목과 정신만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걸 글로 적어둔 김환기입니다. 거뜬거뜬 자신의 취향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온전한 내 자존심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통찰이 보여요. 파란만장한 세월 동안 김환기라는 달항아리 컬렉터가 남긴 글을 읽다 보니 나의 물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김환기처럼 유별나게 모으는 물건은 없지만 책상 주변을 둘러보니 투명하고 알이 큰 안경, 희뿌연 에코백, 달항아리 색 문진, 빨간색 스니커즈, 내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난 책들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보면 김환기가 달항아리를 통해 글로 말하고 싶은 것은 달항아리라는 물건 자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달항아리를 향한 '마음'과 '나만 아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글을 읽는 독자님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들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모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사고 모은 물건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안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지요.

서지형

드로잉 안내서 「의자와 낙서」, 「흔들리는 선」, 저자. 국민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술이론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사람들이 예술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데 흥미를 가지고 미술관, 갤러리, 비엔날레, 아트펀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관련 활동을 해 왔다. 드로잉을 매개로 하는 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 근래에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과 색, 표현을 끌어내는 드로잉 워크숍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작은 것에 자주 감탄하는 버릇을 간직한 채,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나이 드는 것이 꿈이다. (Instagram : @shaking_lines)

원형들 사전 | 서화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민화의 이미지들

글 편집팀

우리 조상들은 풍요와 건강을 바라는 민화를 집에 걸어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궁중 장식화와 민화는 왕실 화원이 그린 그림과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왕실에서 서민층까지 동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과 작품에 담은 염원은 일치했습니다. 민화의 경우 궁중에서 규제하는 요소에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표현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세화와 근하신년

세화는 대표적인 민화로, 지난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의 평안과 풍요를 바라며 문에 붙이고 서로에게 선물했던 그림이다. 세화가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세화 풍습은 궁중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며, 점차 민간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은 새해가 되어도 문에 그림을 붙이거나 그림을 주고받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김만순金萬淳, 1776~1840의 《열양세시기 洙陽歲時記》,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 등 조선시대 세시기류의 기록을 보면 세화는 정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풍속이었다.

“도화서에서 수성(壽星)·선녀(仙女)와 직일신장(直日神將)의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드리고, 또 서로 선물하는 것을 이름하여 세화(歲畫)라 한다. 그것으로 송축(頌祝)하는 뜻을 나타낸다. 또 황금빛 갑옷을 입은 두 장군상을 그려 바치는데 길이가 한 길 이 넘는다. 한 장군은 도끼를 들고 또 한 장군은 절을 들었는데 이 그림을 모두 대궐문 양쪽에 붙인다. 이것을 문배(門排)라 한다…….”(《동국세시기》 정월조)

세화는 소모품의 성격이 강하여 도화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다만 궁궐부터 관아, 양반 저택, 민가에 이르기까지 세화를 붙임으로써 새해가 되면 전국의 집안 곳곳이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하여 경건하고 화려한 그림 축제가 벌어졌을 것이다. 이번 원형들 사전에는 풍요와 건강을 빌며 궁중과 민가에서 세화 주제로도 자주 사용되던 작호도, 십장생도, 수성노인도 민화를 수록하였다. 작품에 담긴 의미가 전해짐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풍요와 행운이 가득 깃드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까치호랑이 (작호도)
조선, 종이,
가로 35cm x 세로 65cm
© 삼척시립박물관 제공

작호도

우리의 문화 속에는 호랑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와 풍속, 신앙, 유물들이 풍부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까치 호랑이는 우리나라 호랑이 그림을 대표하는 그림이다. 산신도, 민화, 탕화, 판화, 호랑이 부적 등에서 호랑이와 까치가 종종 함께 등장하며, 민화에서 호랑이는 어딘지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고는 한다.

호랑이와 까치를 함께 그린 호작도는 작호도(鵲虎圖), 혹은 '까치호랑이도'라고 부른다. 까치 호랑이 그림 속 호랑이는 호랑이의 여러 상징 중 액막이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까치가 가진 길상의 상징이 결합하여 불운을 멀리하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졌다.



필자미상 민화 호랑이 그림 (민화 호도, 民畫虎圖)
한국 광복이후, 종이, 가로 54.0cm x 세로 81.8cm
©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호작도
조선, 종이, 가로 48.5cm x 세로 54.5cm
© 가회민화박물관 제공

까치호랑이 (작호도(鵲虎圖))
조선, 종이, 가로 42cm, 세로 72cm
© 삼척시립박물관 제공





까치호랑이 (호작도(鶴虎圖))
 조선, 종이
 가로 66cm x 세로 130cm
 © 삼척시립박물관 제공



십장생도 8폭 병풍(十長生圖八幅屏風)
 일제강점, 종이, 가로 360cm x 세로 139cm
 ©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십장생도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그림에는 온 가족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현존하는 그림 중 어떤 그림이 세화로 반사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밝혀진 바로 세화의 그림은 화려하고 선명한 채색이며 단풍 또는 병풍의 형태로 그려지고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말 이색(李穡, 1328~1396)은 몸이 아파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십장생도를 꺼내 보며 장수를 기원하고 성에 감사하는 내용을 남겼는데(『목은시교』 권12) 이는 세화 기록 중 가장 이른 예이다.

십장생도는 궁중의 장식화로 선호된 주제였다. 궁중회화와 민화는 얼핏 서로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결코 분리하여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보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십장생도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궁중 십장생도에 비하면 민화는 단조롭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민간화가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궁중양식의 장식화를 모방하고 응용해 왔다.



십장생도 8폭 병풍(十長生圖八幅屏風)
 ©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십장생도 8폭 병풍

민간화가들의 그림은 화원화가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병풍형식으로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다. 이와 같은 민간화가들의 병풍은 수요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며 유통되었을 것이다. 십장생 그림은 궁중양식의 회화가 민간으로 전해져 민화로 변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민간화가들은 정형화된 궁중양식을 변형하여 풍성하게 일구어냈다

남극노인상(南極老人像)
 (김태곤 관련 자료, 수노인(壽老人), 신상(神像))
 광복이후, 나무
 높이 44cm x 너비 18.2cm
 © 국립민속박물관



남극노인성 목각상.
 작은 키에 이상하리만큼
 긴 머리와 무심한 표정이
 보는 이를 웃게 만든다.

수성노인도

장수를 상징하는 수성노인도는 키가 유난히 작고, 몸길이의 반을 차지할 만큼 큰 머리, 늘어진 눈썹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주로 백발에 지팡이를 쥐고, 학과 사슴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인간수명을 지배하는 남극성(南極星)의 화신으로 여겨 남극노인(南極老人)이라고도 하는데 장수를 담당하는 별을 후상화한 것으로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려시대부터 광범위하게 숭배되었으며, 그림으로도 다수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노인도를 「남극노성도南極老星圖」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인사는 아마도 '오래 사세요' 였던 것 같다.

수성노인도는 인간의 수명과 장수를 관장한다는 노인성의 화신인 수노인을 형상화한 그림으로, 수성노인도의 장두단신 도상은 시대별, 지역별로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며 지물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필자미상 수성노인도(筆者未詳壽星老人圖)
 조선, 작가 미상, 가로 61.8cm x 세로 77.6cm
 ©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수성노인도(壽星老人圖)
 조선, 작가 미상, 종이, 가로 29cm x 세로 110cm
 © 삼척시립박물관 제공

*참고문헌

- 민속소식(webzine.nfm.go.kr) 「신년 그림 풍속, 세화(歲畵)」 (21.02.01) 본문
- 월간민화(artminhwa.com) 「새해맞이 벽사와 길상을 위한 그림, 세화(歲畵)」 (14.12.09) 본문
-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3 「궁중 세화」 56p-58p
- 울산매일(m.usm.co.kr) 「[구본숙의 미술평론] 궁중회화와 민화」 (21.11.08) 본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aks.ac.kr) 「작호도(鵲虎圖)」 본문
- 대구신문(www.idaegu.co.kr) 「[박승온의 민화이야기] 수성노인도(壽星老人圖), 범상치 않은 능력자들조차 우러러보는 최고 신선」 (21.10.20) 본문
- 월간민화(artminhwa.com) 「궁중 십장생도 민화 장생도(長生圖)로 거듭나다」 (14.07.06) 본문

援

당길 원

PART.3

끌어 당기다

끌어당기다: 당길 원(援)에서는 풍속의 전통은 계승하되,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오늘날 세시풍속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세시풍속이 내 삶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과거의 생활 양상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면 세시풍속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보며 읽어나간다면 좋겠습니다.

길라잡이 — 아슬아슬(?)하게 MZ세대의 범주에 드는 세 사람이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둥근 달을 닮은 카메라 렌즈로 세상을 관찰하고, 디지털 시대의 산물인 메타버스에 옛 추억을 소환하여 문명과 유행의 순환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또 다른 현실인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불러와 보이는 세계의 진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연결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럴뻔했던 뻔한 시도를 전부 파기하며 세대의 관념과 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동시대적 맥락에 부합하는 '달맞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팝콘: 권효진 | 현지에 | 팝콘

01 팝콘 대소동 - 전격 Z작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현대적 세계관과 전통적 속성을 가진 오래된 것의 접합 가능성을 실험한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주제에 깊이 파고들거나 다른 주제와 통합하려는 시도는 지양하려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앞으로 전통적 형태의 세시풍속을 이어갈지, 차용하여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갈지를 결정할 Z세대의 행동 양식과 사고를 모방한 것이다. 누군가 물어볼 것이다. 달맞이의 탄생, 어떻게 있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표면적 차용의 방식에 집중하고 접근법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

팝콘, 튀겨지다



물 건너 후라이팬이 왔다 2022 ©팝콘

물 건너 후라이팬이 왔다. — Pop- Pop- Pop- 튀겨지며 후라이팬* 위로 튀어 오르는 옥수수 알갱이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여자인 팝콘 님의 가상전시 《WELCOME TO MY HOME 웰컴 투 마이 홈》의 작품들 중 하나를 재연했을 때, 그렇게 튀겨지는 팝콘을 보았다. 팝콘이 그 팝콘(popcorn)이 아니라 다른 팝콘(popcon)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우리말이 포착하지 못한 'ㅍ'로 인한 혼동은 참신했다. 마치 팝업창이 연달아 열리듯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튀어 올랐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우리가 집중했던 "원"들—동굴(圓), 원함(願), 근원(原/源)—이 울퉁불퉁 한데 뭉쳐진 이미지다.



튀겨지는 팝콘 ©현지에

포토그래퍼 팝콘. Pop- Pop- Pop-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때로는 플래시를 터뜨리며 다른 존재들을 조명하고 담아주는 사람. 카메라 렌즈는 둥글다. 왜 둥글까? 광학적 원인 같은 게 있겠지만, 그냥 왜 둥글까 하고 묻고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느끼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감이 온다면? 눈도 둥글다. 빛을 담아내는 것들은 둥글다. 달도 둥글다. 태양도 둥글잖아? 하지만 태양은 맨눈으로 볼 수 없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반사한다. 그래서 바라볼 수 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물들은 볼 수 있다고 해도 눈이 상한다. 컴퓨터나 휴대폰 모니터가 그렇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들은 대개 네모난가? 네모난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둥근 것, 그러나 스스로 너무 밝진 않은 달에 소원을 비는 건가? 쟁반같이 둥근 달이 소원을 담아주고, 누군가의 눈과 카메라 렌즈가 존재를 담아준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거겠지. 담아 간직하고 싶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대개 남을 찍어주는 포토그래퍼의 일이 마치 달 같다. 다른 존재를 비춰주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 그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달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울퉁불퉁한 마음들도 포개어진다. 그러한 원(願)들을 담아내는 팝콘 님의 원은 뭔가요? 하고 물어보니 다른 사람들의 원가를, 이를테면 일상의 의미 같은 걸 조명하는 도구가 되고 싶단다. 그러다 가끔 자기 현시욕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인 《WELCOME TO MY HOME 웰컴 투 마이 홈》같은 작업을 하게 된단다. 아, 어두운 밤을 밝히고 사람들 소원을 들어주는 달도 가끔은 자기 욕구를 발산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보름달이 소진되듯 점점 기울다 그름이 되었을 때, 어디 가서 팝콘님처럼 자기를 튀기고 있는 게 아닐까?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MZ세대의 감성으로 재해석하면, 핼러윈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오늘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달맞이의 탄생> 프로젝트의 계기가 된, 물 건너온 후라이팬과 같은 이 무거운 물음을 떠안고 짐짓 고민할 뻔했다. 혹은 재미나게 읽었던 인류학이나 풍속사 책들을 펼쳐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 “기원”을 찾고, 현재 그것이 단절된 원인을 짚어볼 뻔했다. 그랬다면 그다음 수순은, 다른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풍속이 존재해 왔고 이를 통해 인간이 공유하는 어떤 속성을 추출하는 서사의 실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를 참조했을까? 이 위대한 고전은 신이나 왕의 살해와 부활을 모티브로 한 농경사회의 제의들과 카니발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집대성해 놓았고, 정월대보름의 풍속들을 이와 관련된 사례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하지만 설령 어떤 풍속의 기원을 알고 그것이 잘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작동하도록 할 수 있을까? 국내에 정월대보름에 관한 책이라고는 동화책 몇 권 말고는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관심이 없다. 정월대보름에 맞춰 시장에 출시되는 오곡밥과 나물, 부럼 등은 또 어떤가? MZ세대의 감성으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재해석하여, 오늘의 축제로 자리 잡게 한다는 게 과연 유효한 질문일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팝콘님과 그의 작품을 조명하게 된 것은, 77년 생으로 X세대 쯤 되는 그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며 새 길을 트워주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MZ세대”라니, 말이 안 됩니다!

일 년 뒤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를 사는 마당에 20년을 한 세대로 묶는 단일함은 개탄할 일입니다. MZ세대의 정의를 보세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세대(M)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다니, 서로 다른 두 세대를 굳이 왜 붙여놓습니까? 세대 구분의 유효성을 전면 부정하진 않지만 각자의 삶의 굴곡이 너무도 다릅니다. M세대와 Z세대는 이렇게 통치면 안됩니다.

“90년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죠.

이런 말은 늘 있었고, 이에 맞선 끈대에 대한 거부감도 마찬가지였지만, ‘90년대 애들’은 조금 달라요. 이전 세대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윗세대들에게 고개를 수그리고 듣는 시늉을 했다면, 소위 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터넷, 유튜브로 배우니까. 거기서 별별 것들을 다 배우는데 현실에서 끈대들이 가르치려고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 생활하며 스스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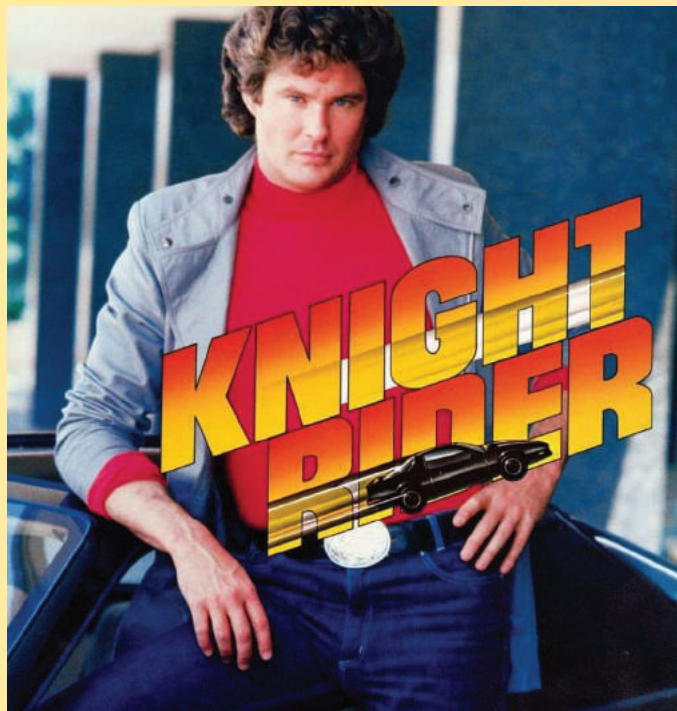
정말 이상하면서 재밌는 질문이죠.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던 건데, 회사라는 시스템에 속해 있으면서 스스로 선다니, 모순이죠. 그런데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Z세대는 이것과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오히려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기대는 것 없이 스스로 성장하려는 것 같아요. 그 행태들이 다재다능하게도 보이고 잡스럽게도 보이는데.. 일례로 ‘스컬파(스트릿 댄스 걸스파이터)’를 보시죠.

'스우파'는 들어봤는데 '스걸파'는 또 뭐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경우는 81년생으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이자 이름이 Z로 시작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는 MZ세대의 특징에 잘 들어맞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세대 구분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팝콘님의 즉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 제기에 갑자기 Z세대에 대한 흥미가 동하는 게 아닌가! 스걸파 말고 또 뭐가 있죠?

'Reels' 해보다!

팝콘님은 휴대폰을 내밀며 스우파와 스걸파의 차이에 대해 분석해주었고, 고등학생들의 시국 코스프레라던가 밈 전쟁 등 참 많은 것들을 소개해주었는데, 그 중 우리가 꽃힌 것이 릴스였다. 그나마 좀 쉬워 보였기 때문이다. 릴스가 뭐냐고?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 앱에 접속, 하단 가운데 릴스 아이콘을 클릭해보자. 혹은 유튜브로 검색해보자. 릴스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줄 거다. 하여튼 팝콘님이 보여주는 영상들을 연달아 보았던 감상은 이랬다. 원본에서 임팩트 있는 부분만 취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구나, 그렇게 절단된 부분에서 발생한 새로운 연상이 기존의 것들과 이어 붙여지며 새로운 맥락을 만드는구나. 즉흥적으로 생성되는 맥락과 이어지는 예상 못한 반전이 재밌고, 콜라주 같기도 하고 아이디어 전시 같기도 하고 저 옛날 전시장에 번기를 뉘어놓은 뒤상이 떠오르기도. 한마디로, 릴스란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하는 대중예술이구나! 하지만 이게 정말 재밌을까? 그러다 둘이 직접 한 번 해보고는, 어머니! 행복해지는 바람에, 비로소 이걸 왜 하는지 알았다. 별 볼 일 없는 것에 행복해지는 게 행복이었지. 우리는 릴스로 인해 순식간에 행복해졌다. 릴레이 릴스가 전파된 것은 이처럼 단순한 이유였다.

전통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게 어때서?



미군 드림리미 <전격 Z작전> 포스터

데이비드 핫셀호프 주연의 <전격 Z작전(원제: Knight Rider)>은 미국 NBC에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90부작에 걸쳐 방영되었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인공지능 자동차 키트를 소재로 하여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는 1985년 KBS 2TV를 통해 처음으로 방영했다.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로,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2018년 출시된 제페토는 얼굴인식과 증강현실(AR), 3D 기술 등을 이용해 '3D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거나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페토*에서 연출한 <전격 Z작전> 이미지

릴스를 즐기는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전통을 향유할까? 문화, 기원, 정체성 등의 서사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다가 굳이 심각해지지 말지 싶다. 전통이 우리의 정체성을 전부 설명해줄 수는 없고, 정체성이라는 걸 꼭 찾을 필요도 없으며,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며, Z세대의 풍속이라 할 만한 것들을 직접 탐색해보려고 한다. 팝콘 님에게 안내를 부탁하니 어떤 캡처 이미지로 답한다. 거기엔 그가 트위터에서 본 다음 문구가 쓰여있었다. “요즘 세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때가 아니라 새 시대를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참신함에 열려 있는 포토그래퍼의 안내로 세 사람이 함께 Z세대를 훑어보며 밀린 수다를! “팝콘 대소동” 혹은 “전격 Z작전” — 통치지 말고, 쫓겨가지도 말고, 새 시대를 배워시다!!!

02

M - etaverse - Z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삶의 양식에 기반한 행위로서의 세시풍속보다는, 행위 이면의 무의식적 원형에 집중했다. 수면 아래 잠긴 이야기는 누군가 꺼내지 않으면 수면 아래로 계속 더 잠길 뿐이니 한번 끄집어내 보자. MZ세대라면 옛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향유할까? 트위터에서 한 주제에 달리는 여러 멘션을 보듯 본문을 스르륵 읽어봅시다!

#

“팝콘 대소동”에 영감받은 세 명의 예술인, Z세대의 풍속을 탐색하는 “전격 Z작전”을 펼치다.

H 권호진

안정된 조직에 종속되기 싫고, 순간 재밌는 기획이 가능한 조직에 소속되는 플레이어.

Z 현지예

말 안 되는 것들이 말하는 걸 포착, 바닥 시공하는 퍼포머이자 드라마투르그.

P 팝콘

음악이 좋아져서 사진을 시작. POP&CONCERT 줄여서 POPCON.



프로젝트 시작의 의미로 제페토에서 연출한 <START> 이미지

팝콘님에게 “밈(meme)”에 대한 얘기를 듣고, 휴대폰으로 SNS나 앱 기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생각들이 우리가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닮아갔달까. 일단 생겨나면 소문처럼 빠르게 복제되고 가공되어 재창조되는 특성이 있다는 밈—우리 생각이 그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이 그랬다. 그렇게 달 아래 손에 손 잡고 강강수월래 하는 듯했다. 어지러운 가운데 맏히는 하나의 상(象)이 있었으니, 그게 “원”이었다. 그 원을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여 빙글뱅그르르... 둥글 원-바랄 원-근원 원-으뜸 원-뭘 원... “원”의 “밈”을 만들어봤다고 할 수 있을까? 급기야 그걸 가지고 메타버스*에 이르렀으니... 실은 원이고 밈이고 모든 것을 구실로 거기서 함께 놀고 싶었던 거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야...

* 메타버스 Meta + Universe = Metaverse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이제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넘어 가상현실이 세계관을 갖고 스스로 작동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0. 떠안은 질문

“정월대보름 풍속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할로윈과 크리스마스처럼 이어질 수 있을까?”

Z 근데 서양에서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가 이어지듯 우리도 우리 것을 살려보자는 생각이 유효할까? 문화와 전통을 동일시 하는 건 문제 아닐까? 사라지는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는 왜 생기는 걸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단절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상실이나 결여가 아니라 새로운 걸 생산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H 우리의 정체성에 전통은 일부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모든 경계가 다 모호해진 상황에서 전통이란 단어로 묶으면 ‘공동체’라는 결속이 생기지. 축구로 하나 된 2002년 붉은 악마가 갑자기 생각나네ㅋㅋ

Z 책의 한 부분을 오려내 읽으면 전혀 다른 느낌일 때가 많아. 세시풍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와 닿는 조각들을 찾아볼까? 절단내고 싶은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게 재미날지도ㅋㅋ 그리고 그것들끼리든 다른 것이든 이어 붙여 보는 거 어때?

H 세시풍속 관련자료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실은 내용이 어렵고 지루했어. 전통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보다는 밈의 방식으로, 달맞이 이미지를 릴스나 틱톡 매체에서 하는 놀이문화의 초기형태 스스로 잡아봐도 좋겠네.

P Z세대를 뭐라고 정의 할 수 있을까? 진보? 아니, 난 그보다는 과정이 생략된 새로움이라고 생각해. 밈의 개념 파악은 ‘개구리 페페 구하기’ 하나만 보면 끝나니까 추천!

Z 아기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며 그리는 도형이 원이야.

H 우리 애도 마구마구 동그라미를 그렸어. 끝이 서로 만나지 않는 동그라미.

Z 맞아 맞아 끝이 만나지 않아! 아기들의 동그라미는 이어지지 않아. 정월대보름 풍속 관련 심볼들을 찾고 갈기갈기 찢어서 콜라주 하는 것도 재밌겠다. 우리 이야기도 맥락 없이 조각내버리고!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 포스터
밈으로 친숙한 캐릭터 ‘페페’의 혐오 상징물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1. 원과 한

<세일러 문>의 문 크리스탈 파워와 <오징어 게임> 속 신파를 통해 원의 내부 들여다보기



제페토에서 연출한 <오징어게임> 이미지

* 1992년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 시리즈는 세일러문과 태양계 행성의 이름을 딴 전사들이 힘을 모아 악당을 물리 치면서 지구의 평화를 지킨다는 내용이다. 내용 전개는 보통 이렇다. 세일러문은 악당과 싸울 때 초반 열세에 몰려 다른 전사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문 크리스탈 파워'로 다 이기는 전능한 모습을 보여 준다.

** 초능력을 가진 마법소녀물의 원조 격으로 주인공이 아이돌 가수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작품이다. 평범한 소녀가 아이돌로 변신하는 정체를 시칭지만 알고 있다는 설정이다. 한국에서는 1987년 MBC에서 방영하였다.

*** 한국 MZ세대와 일부 태어난 시기가 겹치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태어난 세대를 이른다. 사토리란 덕도,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덕도한 사람처럼 아무 욕심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패기는 없지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니멀라이프나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을 행간다.

H 옛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나 어렸을 때 <세일러문>* 엄청나게 좋아했어! 휴대폰에서 처음 티브이가 나오기 시작할 때 KBS 정규 방송 시간 맞춰서 버스 안에서 보고 그랬어. 세일러문이 동시에 가진 나약함과 전능함이 큰 매력이었어. 주변 세일러 전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Z 나약함과 전능함, 그런데, 문이 그랬다! 달이 없었음 지구도 기울지 않았고, 그럼 우리도 없었어. 난 세일러문에서는 세일러 마스! 그리고 보니 칠흑 같은 머리카락 가진 캐릭터를 좋아했어. 더 어릴 때는 <천사소녀 새롬이>**의 연보랏빛 머리카락이 좋았고. 새롬이 요술봉을 가지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

P 관계가 제로인 Z세대가 SNS로 연결된다. 그리고 원(circle)은 제로(0)의 모양이지. 일본의 사토리 세대***처럼 Z세대는 특히 현재를 즐겨. 요즘 릴스, 틱톡에서 한창 유행 중인 노래가 <오징어 게임> 테마곡이야. 제드(Zedd)라는 유명한 디제이가 리믹스한 버전이 인기를 끌면서 너도나도 차용하며 밈 음악으로 쓰이기 시작했어. 릴스는 45초 제한인데 가장 임팩트 있는 10초 정도가 보통 많이 활용돼.

H 그 드라마 왜 그렇게 인기가 많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보긴 다 봤어. 근데 서양에서 신파가 먹히는 이유는 뭘까?

P 서양 애들과 달리 우리는 한으로 점철된 인생이거든. <오징어 게임>이 감정이입이 잘 되게 만들어놔서 신파에 눈을 뜨게 해준 것 같아. 사실 진작에 잘 만들고 있었지만 자막이라는 장벽이 있었던 건데, BTS와 봉준호가 문 열어 주고 넷플릭스가 시장을 깔아주니 이제 막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게 개넨한텐 엄청 신선한 거지. 유튜브에서 <오징어 게임> 보는 외국인들 반응 봐봐. 아주 사족을 못 써.

Z 오, 그 정도야? 아, 얼마 전에 <원(願)>*이라는 제목의 무용 공연(이세승 안무)을 봤는데, 그 공연에 신파적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 무용수 춤과 함께 부적과 붓글씨 이미지가 영상으로 휘몰아치는데, 정말 강력한 원이 가슴을 쳐서 나 울었잖아.

H 우리의 '한'은 어디서 오는 걸까? 누가 멋지게 했다. 타고난 유전인가?

미소녀 전사 세일러 문 (1992)



P 역사가 증명하는 역울함에서. 오래전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근대에는 군부정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H 한을 개인감정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동체의 한이라고 통 치는 건 아닐까? 난 개인적으로 한 멋지게 두기보다는 대부분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기를 즐겨하고 있어.

P 우린 국가주의에 물들어 있던 국민이니까. 그래서 개인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개인주의가 Z세대의 등장과 함께 너무 급격하게 찾아왔고, 사회 전체가 이것을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중인 것 같아. 서양은 개인주의가 베이스니까 한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우리의 지난 한과 과거부터 현재의 어두운 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 이제 개네들도 한을 알아버린 거지.

Z 원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한이 생겨. 작고 소소한 바람들조차 표출 못 하고 참을 때. 여성들이 한이 많다지? 요즘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 여성들은 자기 욕망을 꼭 눌렀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거 같아. 거기다 삼중지도**를 강요받으면서 자기 원이 아니라 남의 원 뒤치다꺼리를 했으니. 그런데 원은 안 죽어. 대개는 응어리지지. 내 것은 없고 남의 좋은 것만 이루어주는 삶을 산다고 상상해보면 무슨 느낌인지 좀 알 거야. 난 개인의 한을 국가적 한으로 통 치는 바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집단주의가 한마저 빼앗아 가는 건 아닌지.

H 원이 없으면 한도 없겠군.
Z 그래서 원과 한이 붙어서 원한! 사실 이때 '원'은 '원망할 원(怨)'인데, 원망 대신 '원할 원(願)' 붙이고 싶어. 願恨. 아까 말했던 공연 안무가의 이전 작업이 <한(恨)>이었어. 그다음이 <원(願)>. "한의 미학이 인내를 강요하는 기제가 아닌가?" 물으며 원의 미학을 그리는 듯했어. 원(願)을 "고통을 참지 않고 몸으로 발산하는 능력"이라고 재정의하며 '원한다'는 것의 이미지를 확 바꿔 놓았지. 나아가 '그런' 원이 몸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거라고 하는데, 강력했어. 부처님은 한의 원인을 원으로 봤을까. 근데 그게 또 삶의 동력이라 무턱대고 욕망을 내려놓고 비우자 하는 허깨비들도 많지. 아니 뭐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자꾸 비우재ㅋㅋㅋ

Z 불교에서는 태어난 것 자체를 고통으로 보는 부분이 커서 원을 더 부정하는 것 같아. 인도에선 그러면서도 그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수용하는 면도 강하지.

* <원(願)> WANT.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1 아시아무용커뮤니티의 안무가랩 쇼케이스에서 무용가 이세승이 선보인 작품. 원 없이 춤추고 그 여흥을 누리는 춤꾼의 모습이 압권이었다.

** 여자가 따라야 하는 세 가지 도리. 여자는 어려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르는 도리

2. 원하는 마음

원의 원형을 찾기 위한 이어달리기.
방 탈출 게임!

Z 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이 뭘까? 원의 원형.

H 난 해와 달이라고 생각했어. 동그란 형태도 그렇지만, 농경사회에는 자연을 통제해 농사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니까.

Z '바랄 원'의 원형은?

H 가지고 싶은 마음.

Z 왜 가지고 싶지?

H 바란다는 것은 가지고 싶다는 것이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것이지.

Z 그럼 통제는 왜 해?

H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주인이 되고, 전능감을 느끼니까. 통제가 가능한 건 온전하게 소유해서 간직하든 부수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만약 절대 가지지 못하는 어떤 것일 땐 그게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면서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도 해. 나 포기도 잘한다고 했잖아ㅋㅋㅋ

Z 통제할 수 없는 존재를 지울 때 나의 존재감이 상승하는 건가? 세상이 내 맘대로 다 된다는 느낌? 그렇다면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내 존재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걸까?

H 나는 안전보다 우월함이 더 맞는 말 같아.

Z 우월해야 안전하잖아. 원시시대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신체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우월해야 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H 맞네. 내가 다 이겨ㅋ

Z 원의 원형은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는 걸까?

H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기도 해. 세시풍속이 사라진 게 자연을 통제하게 되어서일까? 예측이 쉬워져서?

Z 혹은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뭔가가 바뀌거나 다양해져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느끼는 안전 말고 추구하는 다른 안전의 욕구로 인해서?

H 생각해보면 헬러원처럼, 놀아도 된다고 명석 깔아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고 귀신 옷 입고 일탈은 하지만, 나 외에도 다 그렇게 노니까 남의 눈으로부터 역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놀 수 있나 봐.

Z Z세대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어떤 이미지일까?

H 우리에게 공동체는 무엇인지부터 대답해보자.

Z 내가 소속되기 어려운 거 ㅋㅋㅋㅋ

H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속?

P 게임 속에 있는 것! 클럽하우스*도 비슷하고.

H 그러네. 여럿이 모여야 적을 부술 수 있는 게임이 있고, 클럽하우스도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여야 하고.

제페토로 연출한 <소원을 말해 봐> 이미지



3. 원의 연관 검색어

당신의 원이 감시되고 통제되고 있다!

Z 사실 공동체는 아싸 내지는 추방된 사람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래야 비교하면서 안전한 마음이 들지.

H 혹시 공동체에 속하고 싶나요?

Z 그럼! 내가 안전감을 느끼는 곳이 있다면.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기도 해. 일이란 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돌아가게끔 작동하는 거라, 깊이 연루되잖아. 소속감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 일을 하고 싶다고보다는 내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살면서 손에 잡히는 것 하나는 있어 줘야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잖아.

H 난 내가 속할 공동체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싶어.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새끼줄에 엮인 조기가 되는 기분인데 나는 조기 말고 상어 하고 싶어. 떠도는 김삿갓처럼 이 집에서 밥 먹고, 저 집에서 밥 먹고 싶어. 참! 소비야말로 존재감을 느끼게 해. 특히 새로 산 옷을 입을 때!

Z 나는 아직도 몇십 년 전 올드패션이라, 생산 쪽인 듯ㅋㅋㅋ

H 패션은 10년 주기로 유행이 돈다니까 재생산이네?

Z 혹은 다 같이엮고 싶은. 분해 쪽인지도 몰라. 근데 분해하려면 뭘 만들어야지, 남의 걸 분해하면 잡혀감.

H ㅋㅋㅋ 그럼 분해의 주제를 정하자!

Z 이런 이어지는 얘기들도 분해와 접점이 있어.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겠지만. 그렇지만 결론도 잘 짜깁기 하면 분해가 가능해. 난 우리가 MZ세대의 축에서 애매한 나이대인 것이 재밌어. 우리만 애매하다고 느끼는 건가?ㅋㅋㅋ

Z 요즘 내 SNS에 자주 뜨는 사회문제가 히키코모리**야. 그렇게 은둔하는 것도 어쩌면 자기 존재의 총일함에 대한 원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 가족들에게는 숨소리도 거슬린다며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로 인해 가족 전체가 고립되게도 하는데, 그럴 때 유능감을 느끼는건가. 무력감으로 두문불출하지만, 동시에 고립된 집단 안에서 전능감을 발휘할 수도 있겠어. 히키코모리, 난 공감 돼. 나도 비슷한 유형 같아.

P 소통을 잘하는 걸 보면 히키코모리 유형은 아닌데?

H 그러게. 주변 사람들이랑 말도 잘 섞이지 않고, 아무런 생산활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Z 일본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속 마츠코가 나중에 히키코모리가 되는 것처럼, 나도 머잖아 히키코모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랄까.

P 비슷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동일시하지는 마. 다른 사람이야.

Z 공감이 된다고 같지는 않아. 고립되고 자폐적인 사람들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두 사람은 SNS에 자주 뜨는 사회문제 있어? 인스타그램에서 돋보기 모양 누르면 뜨는 거.

P 나는 주로 정치시사, 예로.

H 나는 가십, 불륜.

Z ㅋㅋㅋㅋㅋㅋ원들이 가시화되네. 재밌다, 히키코모리-정치-예로-불륜. 다 감시되고 있네.

H 오늘 우리 애가 신발을 짹짹으로 신고 갔어. 이렇게 마음대로 신으려고 같은 디자인을 다른 색으로 두 켤레를 사 달라고 원한 모양이야.

P 난 지금. 봐. 오른쪽 왼쪽 다른 색깔 신발 신었어. 근데 말야, 릴스처럼 짧은 영상이 Z세대에게 주목받는 건 다른 색 신발을 짹짹으로 골라 신 듯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2020년 3월 출시된 음성 소셜미디어. 기존 가입자로부터 초대받아야 참여 가능하며, 영상이나 텍스트 작성은 불가능하며 음성으로만 대화할 수 있다.

** 은둔형 외톨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들을 일컫는다.

*** 일본 소설가 야마다 무네키 원작을 나카시마 테츠야가 화려한 뮤지컬 풍의 영화로 연출했다. 더 떨어질 곳이 있나 싶을만큼 타락한 마츠코의 삶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마츠코의 생이 혐오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마츠코는 결코 혐오스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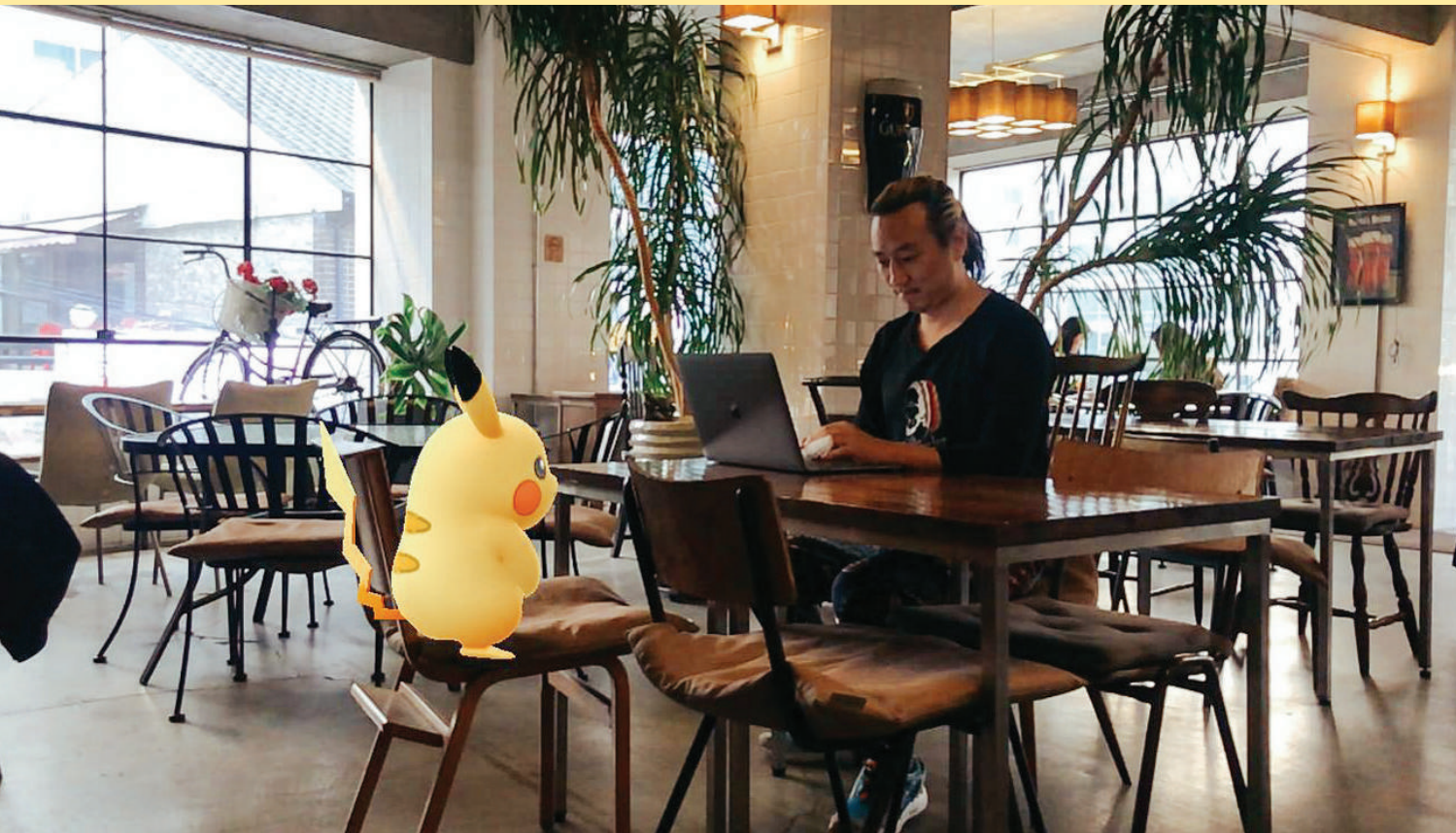
03

달맞이의 탄생 : WELCOME TO MY HOME

달은 서서히 기울다 다시 차오르며 주기를 순환하는 역동적인 천체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달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하는 것은 달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증거 그 자체다. 이번 프로젝트의 결말인 'WELCOME TO MY HOME'에서 우리는 달의 역동성을 담은 팝콘을 우리가 맞이하고자 하는 '달'의 존재로 상징한다. 그는 달이 차오르듯 여러 주제와 매체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포토그래퍼이며, 때로 자신의 원(願)에 따라 기울기를 마다하지 않는 요즘 사람이다. 그는 보름달을 담은 등근 렌즈로 오늘날의 놀이문화인 맘을 즐긴다. 이제 우리의 '달'을 담은 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달맞이 놀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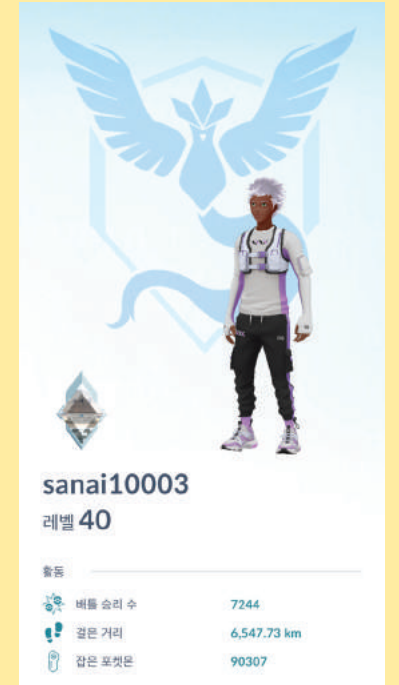
《포켓몬고~고스냅샷》

고스냅샷으로 촬영한 사진



《포켓몬고~고스냅샷》은 한국 도시 속 잉여 공간과 전시 공간을 주제로 한 초타원형 갤러리 (Superellipse Gallery) 프로젝트 참여 전시다. 2020년 가구 갤러리 스탠다드에이 (STANDARD.a)에서 포켓몬 사진을 전시하고 관람객과 함께 포켓몬 일상을 공유했다.

위치 기반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고'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팝콘이 잡은 포켓몬은 십만 마리가 넘는다. 이후 등장한 포켓몬 고의 고스냅샷(GO Snapshot)기능은 포토그래퍼인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포켓몬 고가 게임의 영역을 넘어 사진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문이 되어주었다. 이후 만렙을 달성한 그는 다음 세대 포켓몬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포켓몬 고를 계속하는 것은, 고스냅샷을 통해 포켓몬에게 일상을 선사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팝콘의 일상 구석구석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포켓몬마스터 프로필

포켓몬마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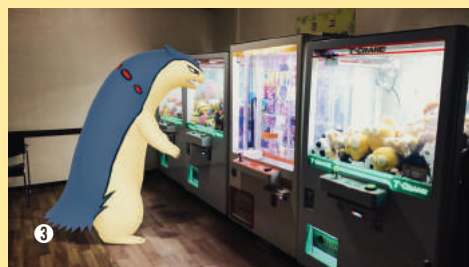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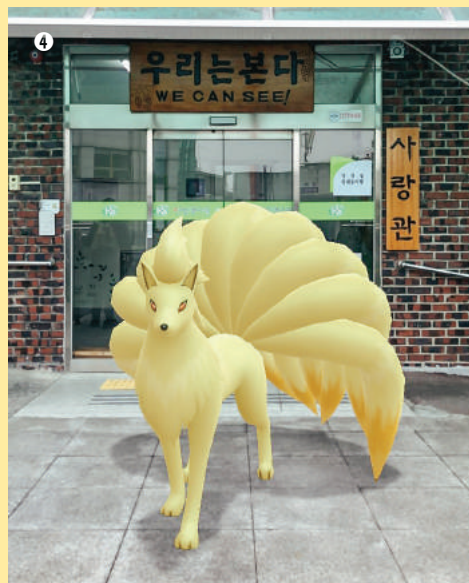
1



2



3



4



5

이 작업은 한빛맹학교 사랑관 앞에서 촬영되었습니다.

《WELCOME TO MY HOME 웰컴 투 마이 홈》

강렬한 명도와 색조, 1점 투시, 자신을 캐릭터화한 이미지가 합쳐진 사진들은 모두 제2의 고향이자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근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합성 효과가 가미된 코믹한 캐릭터는 부암동 주변에서 자기 복제적 합성 이미지들로 가볍게 튀어 오르며 팝콘의 과거와 미래, 가상과 현실을 터치한다.

팬 건너 후라이팬이 왔다



모기가 나타났다



- 1 자기가 이쁜 거 아는 애
- 2 파이리(파이어 맨)
- 3 포켓몬 구출하기
- 4 우리는 본다
- 5 허위 사실임



이번 프로젝트에 등장한 사진은 《WELCOME TO MY HOME 웰컴 투 마이 홈》이라는 가상 전시에서 선보인 바 있다. YKP 갤러리를 3D 렌더링한 가상 공간에 사진들을 전시하고 이것을 캡처한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이었으며, 전시한 이미지들은 NFT* 방식으로 제작하여 판매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팝콘(POPCON)

포토그래퍼 팝콘은 서울에서 활동하며 전시, 공연,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진 관련 일에 종사한다.

그가 사진을 처음 접한 것은 소니 사이버샷 DSC-707을 사용하면서부터였다. 이 카메라의 발매연도인 2001년은 싸이월드, 네이버 블로그, 사진전문 사이트 레이스다와 같은 웹 사이트가 흥하던 시기며, 780년대 생들에게는 갓 구매한 디지털 카메라로 이것저것 찍어보던 추억이 떠오르는 시절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시대인 요즘 카메라를 목에 걸고 촬영하는 건 과거지사가 되어가고 있지만, 팝콘에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일상이다.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같은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관찰하며 꾸준히 배우는 그는 자신을 “좋아서 시작한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www.instagram.com/pop_con.p)을 통해 작업 포트폴리오, 고양이와 친구를 찍은 사진, 건축과 인테리어 사진, 배우들의 프로필 사진, 퍼포먼스와 전시 사진 등 취미가의 사진부터 노련함이 필요한 프로의 그것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번 가상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예술을 보여주기보다는 게임 캐릭터와 함께 거니는 일상, 큰맘 먹고 구매한 해외직구 후라이팬으로 자신을 튀겨내는 소탈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소소하고 고소하게 선보인다.



- ① 커피는 패션
- ② 프로 포토그래퍼
- ③ 오늘은 어벤져스를 보고 왔다
- ④ 시국자세
- ⑤ 소싯적 세탁소 아들





4

04

<달맛이의 탄생> 소감을 말해 봐!

H. 권효진

요즘은 다들 메타버스를 한다더라. 팬데믹 시대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안이자 대세로 떠오른 것만은 확실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다. 코로나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며 만나고자 하는 '원'은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기반의 메신저뿐만 아니라 ZOOM 또는 Google Meet 등 화상 미팅 플랫폼, 거기서 나아가 반짝인기를 끈 음성 기반 SNS인 클럽하우스까지 등장시켰다. 앞선 플랫폼은 2차원 영역에서의 교류이지만,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포괄하려는 시도까지 이른다. 돈, 그러니까 사람들의 원(願)이 모이는 그곳, 메타버스에 셋이 한번 모여보기로 했다. 우리는 가장 이용자가 많다고 하는 제페토(ZEPTO)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아바타를 만들라고 하는데, 고민이 된다. 지금의 내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할까? 부캐의 시대라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야겠다! 아.. 그런데 제페토 안에서 심혈을 기울인 나의 아바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머무르라 하면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려 했더니 저 멀리 떠난다.



5

Z. 현지에

메타버스에 진입하려면 일단 떨어져야 했다. 한 세대의 몰락, 그런 게 연상되었다. 몰-락. 말 그대로, 모르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이면서... (아직) 모르는 즐거움과 만나는 일? 정말로, 예상 밖에 신났다. 아무것도 모르니 용감해졌고 단순해졌다. 고독했지만 웅덩이처럼 가상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가능성으로 숨 쉬는 듯해 외롭지 않았다. 그래서 궁금해진 게, 이런 매체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를 향유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걸까? 어느 쪽으로 더 기울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이, 생각 대부분이 가상적인 거다. 있지도 않은 뭔가를 바라거나 지나가 버려서 없는 걸 가진 것처럼 산다. 현실이 곧 가상현실. 어떤 식으로 이 가상현실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리 흐른다. 하지만 릴스를 하면서 별거 아닌 것에 행복해졌고, 포켓몬 고의 등장으로 지나간 순간이 다정해졌다. 기억이 새롭게 구성되더라. 알아채지 못한 뭔가를 알아채게 되면 현실이 달라지는 거였다.

P. 팝콘

음성 기반 서비스인 클럽하우스를 쓸 때는 자유로웠으나, 메타버스에서는 익숙지 않은 수행 요소가 많아 버벅댔다. 무인 계산대 앞에서 헤매는 어르신들처럼 말이다. "최신의 기술은 최신의 세대에게"인가 싶더라. 자신의 욕망을 담은 아바타를 내세운 가상놀이터에서 10대 20대들이 즐기는 건 당연해 보였다. 오쿨러스(VR)로 자기 집 테이블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에 각자의 테이블을 세팅한 후에 함께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는 세상이고, 이세계 아이돌같은 가상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문에서 TV로 넘어갔듯, 컴퓨터에서 VR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가 또 도래했다.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어느 시대에 머물고 있는가에 따라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시대는 앞서간다.

원형들 사진 | 놀이
다정하게 밀고 당기기

일러스트 도운

강강 술래

보름달이 짝 차오른 달 밝은 밤,
마을 여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돌고 돕니다.
“강강술래~” 하고 누군가 선창하면
여러 사람이 노래를 이어받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달빛이 사방을 환하게
밝히며 노래와 춤으로 밤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들의 일정한 소리와 몸짓의
균형에서 우주의 조화로운 원리가
느껴집니다. 돌고 도는 원무를 추는
여인들의 달쁜 얼굴 위로, 술한 감정들이
어지러이 피어오릅니다.

전라남도 서남해안지방에 전승되는 민속놀이.
대보름이나 한가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추는
‘달의 춤’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쥐불놀이

정월 첫 쥐날, 논밭 독에 불을 놓았습니다.
이날은 마을 아낙들이 일손을 놓고 쉬는 날입니다.
옷을 지어 입으면 쥐가 쏜다고 하여, 길쌈도 바느질도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짚을 가져와
밭두렁 논두렁에 모여 불을 지핍니다. 타오르기
시작한 불은 사방에서 일렁이며 장관을 이룹니다.
자정이 되어 다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들에 놓은
불은 마르지 않습니다. 타닥타닥 논밭의 해충과
쥐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푸른 새싹이 힘차게
돌아나기를 바라며, 쥐불놀이는 죽은 풀들이
바람에 흩어져 새벽에 닿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정월 첫 쥐날에 쥐를 쫓는 뜻으로 논밭독에 불을
놓는 놀이. 불의 기세가 크면 좋다 하여 이날은 각 마을이 서로
다투어가며 불기세를 크게 하는 풍습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일 년 중 가장 뜻깊은 날, 온 세상이 풍요로운 대보름입니다. 두 고을 사람들이 모여
각각 편을 나누어 줄을 마주 잡아당기며 승패를 겨룹니다. 어떤 지역은 하루, 어떤 지역은 3일에 걸쳐
지칠 줄 모르는 승부가 계속되었습니다. 고을 간 대항전으로 온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는 이날,
다른 마을을 이기려고 기를 쓰는 청년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이긴 마을에
풍년이 든다니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요. 응원하는 이들의 함성과 농악대의 참여로 흥을 더하며,
무르익는 한낮의 태양과 함께 대회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져 갑니다.

줄다리기



대보름날에 많은 사람이 두 편으로 나누어 줄을 마주 잡아당겨
승부를 겨루는 성인남녀놀이. 줄다리기의 성패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길라잡이 — 오늘날 할러윈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축제입니다. 정월대보름도 할러윈처럼 만인이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월대보름이 새로운 상상의 장이 되어 허용된 일탈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봐요.

Trick or Treat! 정월대보름 다시보기

글 김대현

예비군이라는 지위

한 남성이 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업한 그는 단정한 복장과 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직장의 엄격한 근무지침은 결코 어길 수 없는 경전과 같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온다. 아직 새벽의 어스름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아침, 그는 장롱 속에 잠들어 있는 군복을 꺼내 입기 시작한다. 그가 옷을 입는 모습은 분명히 평소와 다르다. 매일 목까지 깔끔히 채우던 앞섶의 단추는 하나도 채우지 않는다. 벨트 바깥으로 빠져나온 상의는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 오랜만에 쓰는 모자는 일탈을 강조하는 래퍼보다 더 뼈뺀 각도를 지향한다. 집합장소인 동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억지로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예비군들을 통제하는 초면의 조교들에게 반말로 농지거리를 던진다. 예비군 훈련 규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어길 수 있을까를 궁리한 사람처럼, 그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나머지 다리의 각도를 최대한 벌린다.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에 가면 불량해진다는 이른바 예비군 효과다. 이와 같은 예비군들의 행동 양식을 단순히 군중심리나 제복이 주는 익명성의 효과로 치부하는 것은 단편적인 오해에 불과하다. 표준화된 제복을 통해 해당 직무에 순종하는 신체를 생산하는 제복 효과와 달리 예비군은 제복이 요구하는 행위와 최대한 다른 행동을 수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비군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비군이라는 특별한 지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방과 전복의 시간

예비군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그를 분리한다. 국가가 예외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시민을 일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이 바로 예비군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예비군이 현역병과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예외상태라는 점이다. 예외상태가 길어지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일상이 된다. 나아가 이 상태는 말 그대로 마련된 것으로 실재가 아닌 가상의 비상사태이다. 그래서 예비군이라는 예외상태는 기존 사회와 국가의 규칙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지만 다시 곧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는 하나의 익숙한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가톨릭 문화권에서 예수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금욕을 하기에 앞서 실컷 고기를 먹고 즐기는 사육제,



사람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접근하여 함께 웃고 춤을 춘다. 마찬가지로 예절이나 권위와 같은 기존의 고상한 가치들은 조소의 대상이 된다. 왕은 거지가 되며 미치광이는 현자가 된다. 성스러움은 모독 되고 저속한 농담들이 찬사를 받는다.

즉 카니발(Carnival)이 그러하다. 미하엘 바흐친에게 카니발은 일상의 질서를 극복하는 해방구로 기능한다. 이 시기에 카니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분, 나이, 직업 등 위계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외부적 지위가 정지된다. 그에 따른 의무나 행동 양식도 면제되는 것은 물론이다. 사람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접근하여 함께 웃고 춤을 춘다. 마찬가지로 예절이나 권위와 같은 기존의 고상한 가치들은 조소의 대상이 된다. 왕은 거지가 되며 미치광이는 현자가 된다. 성스러움은 모독 되고 저속한 농담들이 찬사를 받는다. 이후에 이어지는 절제와 금욕의 기간인 사순제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와 대척점에 있는 욕망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예비군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일상의 규범과 분리된 곳에서 회사의 직급이나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작은 축제를 벌이고 있다. 예비군복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무력화하는 일종의 가면으로서 그들이 카니발에 진입해 있다는 사회적 표식이다. 예비군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상의 시간에 거할 수 없는 존재들로서 카니발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규범적 일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할러윈, 허용된 일탈

할러윈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축제와 달리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 누리는 축제가 된 것도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할러윈에 담긴 카니발적 요소에 있다.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과 기존의 가치가 전복되는 허용된 일탈의 시간이라는 점이 그렇다. 할러윈의 기원은 죽음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고대 켈트족의 행사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유력하다. 켈트인은 가을의 수확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에 죽은 자들이 자신들 주위에 다가온다고 믿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죽은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유령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유령이 되는 것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할러윈의 상징이 된

유령 분장이다. 이때의 분장은 무섭고 혐오스러울수록 인기가 높았다. 귀신이 왕래하는 비상사태에서는 일상의 모습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시간의 더께를 쌓아가며 점점 기발한 형식을 요구하게 된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괴한 이미지들을 생각해야 했고 이러한 상상은 일상의 미감을 전복하는 쾌감으로 이어진다. 유령 분장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효과는 그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해도 허용된다는 점이다. 유령은 '시간의 이음매가 어긋난 곳'에 자리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존재하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의 행동은 어긋난 시간의 여백에 기재될 뿐 그 이후의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공공연히 외부로 발산해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다. 그래서 할러윈에는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해도 그것이 중대한 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다면 가급적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누가 더 사람을 (유쾌하게) 잘 속일 수 있는냐는 만우절이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공연히 구애해도 너그러이 허용되는 밸런타인데이가 할러윈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것도 이처럼 일상의 궤도에서 벗어나 허용된 일탈의 시간이 주는 매력에 있다.

정월대보름과 할러윈의 유사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양의 아이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장난이 싫으면 먹을 것을 주세요 (trick or treat)'라고 외치며 집마다 다니는 것처럼 마을의 어린이들은 정월대보름에 사람들이 장만한 음식을 먹기 위해 여러 집을 다닌다. 이를 백가반(百家飯)이라 하는 데 백 군데의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의 풍속과 놀이문화는 할러윈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흥미로운 놀이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전통풍속과 놀이가 할러윈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에 쉽사리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월대보름이 새로운 상상력이 수시로 교차하는 놀이의 장이 아니라 전통의 복원과 계승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월대보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일탈과 전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정월대보름이 전통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참여자 스스로 규칙을 생성하는 새로운 놀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월대보름의 새로운 가능성 한국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도 이런 맥락에서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새해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보름달을 기념하는 이 축제는 묵은 것이 가고 새것이 오는 시기로서 할러윈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이음매가 어긋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귀신의 해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액막이를 위해 동네를 연결하는 다리를 밟기도 하고 연을 띄우기도 한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대보름의 다음 날을 귀신날이라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귀신날을 쉬는 날로 정한 이유는 사육제와 유사해 보인다. 정월대보름 이후에는 새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므로 그날까지는 마음껏 쉬도록 하는 것이다. 여하튼 귀신날에 사람들은 귀신이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신발을 감추거나 얹어 놓는다. 신발이 귀신의 발에 맞으면 그 사람이 해를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월대보름과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선달그믐에 귀신 탈을 쓰고 귀신을 쫓는 나례(儺禮)를 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월대보름과 할러윈의 유사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양의 아이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장난이 싫으면 먹을 것을 주세요(trick or treat)'라고 외치며 집마다 다니는 것처럼 마을의 어린이들은 정월대보름에 사람들이 장만한 음식을 먹기 위해 여러 집을 다닌다. 이를 백가반(百家飯)이라 하는 데 백 군데의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의 풍속과 놀이문화는 할러윈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흥미로운 놀이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전통풍속과 놀이가 할러윈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에 쉽사리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월대보름이 새로운 상상력이 수시로 교차하는 놀이의 장이 아니라 전통의 복원과 계승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월대보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일탈과 전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정월대보름이 전통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참여자 스스로 규칙을 생성하는 새로운 놀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뒤섞여 기존의 가치를 전복하는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상상력이 탄생할 때, 정월대보름을 비롯한 모든 명절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현 문학평론가. 2011년 제4회『플랫폼 문화비평상』수상, 2012년 제17회 『실천문학』문학평론 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시 전문 계간지 『청색종이』편집주간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당신의 징표-이름의 존재론과 성의 정치학』, 『불온한 제국』, 『전태일의 친구들- 전태일 노동구술기록(편저)』, 『이소선의 기억과 기록(편저)』, 『토크빌과 평등의 역설(공저)』, 『법정에서 만난 역사(공저)』 등이 있다.

뜯어 쓰는 입춘축

입춘날 봄이 온 것을 기리어 축하하거나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글.

입춘(立春)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이자 봄을 맞는 날이므로
이날 봄의 형상에 적합한 축하·기원·경계 등의 글을 쓰는데,
이를 입춘축(立春祝)·춘축(春祝)이라 한다.

그리고 종이를 잘라 좋은 글을 쓰고 입춘일에 각 집마다
대문이나 기둥 등에 붙인다고 하여, 입춘첩·춘첩·
춘첩자(春帖子)·입춘방(立春榜)·춘방(春榜)·문첩(門帖)이라 하며,
또는 입춘(立春)붙인다고 한다. 그리고 문이나 기둥마다
대구의 글을 지어 붙인다고 하여,
춘련(春聯)·대련(對聯)·문대(門對)라고도 한다.

© 궁영그래픽스튜디오 www.00graphicstudio.com



어쩌면 이미 알다시피, 세시풍속

Vol 1. 원형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행인	김태훈
사업운영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완 전통생활문화본부 본부장 조서영 전통생활문화팀 팀장 김지선 전통생활문화팀 주임
기획·편집	주식회사 시하기획
발행일	2022년 2월
ISBN	결21-07 979-11-89321-80-2(03380)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해영회관 5층) T. 02-398-7900 F. 02-398-7998 www.kcdf.kr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수록된 내용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수록된 이미지와 본문글을 사용할 때에는 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